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67
2010.07.07
gonggam.korea.kr



SAVE ENERGY, SAVE KOREA
녹색생활이 지구 살린다

중점기획 토론토 G20 정상회의 의미와 전망

韓美 전시작전통제권 2015년 12월 전환 합의

201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저탄소 생활실천
그린에너지패밀리
www.gogef.kr
공공기관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28℃이상 유지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팍! 아껴!
겨울철 불우이웃 팍! 돕자!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 사랑 +
캠페인 참여하기
www.gogef.kr
끄기
점심시간 조명, 컴퓨터
OFF
지키기
여름철 적정실내온도
26℃ 이상
풀기
넥타이
쿨맵시
우리 함께 여름철 전기절약 꿈을 이루어 보아요
1만개소의 건물 참여
10만MWh의 전기절약
100만장의 연탄기증
■ 참가방법 : 그린에너지패밀리(www.gogef.kr)에서 6월말까지 신청
■ 참여대상 : 전국의 건물(사무실, 상업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병원 등)
MKE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절약은 '제5의 에너지' 에너지 절약이 국가경쟁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에너지 절약이 더위까지 몰아내고 있다. 최근 서비스업계는 실내 적정 냉방온도인 섭씨 26도를 준수하겠다는 에너지 절약 결의문을 선언했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업계가 이처럼 조금의 더위에도 불평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쳐두고 에너지 절약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녹색성장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기업 이미지를 더 좋게 하고, 고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에너지 절약은 기업의 생존전략이 됐다. 시민들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제품을 골라서 구입한다. 환경에 대한 기여도가 기업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다. 에너지 효율 증진과 에너지 절약은 원가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의 에너지 효율 증진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

여기에 정부가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부터 에너지 소비 상위 10개 기업을 포함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 기업들이 협상 초기에 제시한 절감 수치보다 세 배를 늘려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할 만큼 기업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개인의 노력은 아직 미흡해 보인다. 에너지 절약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고, 에너지를 아끼는 습관도 생활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특히 에너지가 귀한 줄 모르고 자라온 세대의 경우 더욱 그렇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는 속담이 있듯 에너지 절약은 어릴 때부터 몸과 마음에 배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4월 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동아리인 'SESE나라'가 출범했다. SESE는 'Save Energy Save Earth'의 약자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지구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범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도 벌써 1백여 개 학교와 청소년 단체가 SESE나라를 꾸렸고, 참여한 학생 수도 2천6백명이 넘었다.

에너지 절약은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다. 〈타임〉지는 에너지 절약을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이은 '제5의 에너지'로 규정했다. 에너지 절약이 곧 국가경쟁력인 이때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환히 밝히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에너지 절약이 우리의 미래요, 국가경쟁력임을 잊지 말자. G

Weekly
2010.07.07
No.67(통권 168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아빠, 엄마, 아이가 빙그레 웃음 짓네요. 초록잎과 나뭇가지로 이뤄진 이들 가족의 얼굴처럼 우리 생활도 녹색으로 물드는 나날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녹색가족의 녹색생활, 바로 지구를 살리는 밑거름입니다.
〈사진 · TOPIC〉



32

일러스트 · 김영민



08



20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7.0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녹색생활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푸른 생명으로 가득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하지만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우리의 터전인 지구는 조금씩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기에서 구하려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 녹색생활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온몸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녹색생활,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58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66호(6월 30일자) 기획특집 '과학기술로 더 강한 대한민국 만든다'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과학기술 강국으로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과학기술 개발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밝은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세계 일류를 선도하는 분야가 많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1백 년을 내다보는 눈을 갖고 한국을 선진 일류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시켰으면 합니다."_문미애

"바이러스감염대응연구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지난해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전 국민이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특히 백신 공급이 모자란다는 소식에 아이 가진 부모들은 모두 다 긴장했을 겁니다. 백신에 어주번트가 더해져 면역력을 높이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백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청국장 성분을 이용한 어주번트의 활용에 입을 다물 수 없기까지 합니다. 박사님과 연구원들은 진정한 '국가대표' 입니다."_어창민

66호 '한식 세계화, 맛다른 주장'을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한식 세계화의 맛다른 주장' 기사를 관심 있게 잘 봤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현지인의 입맛과 정서에 맞춰야 세계화 전략이 적중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사뭇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_강창규

"세계적으로 한식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표준화된 레시피와 조리방법인 것 같습니다. 천차만별인, 그야말로 감으로 하는 '손맛'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맛, 또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요리라는 인식이 강한 한식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식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_이현정

66호 '2010 남아공월드컵-자랑스럽다 태극전사들!'을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확인한 시원하고 자랑스러운 월드컵이었습니다. 그간 '넘지 못할 산'과 같던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태극전사들의 감동적인 장면을 화보로 다시 보게 돼 기뻤습니다. 다음 월드컵의 선전을 기대하게 만든, 가슴 뿌듯한 기사였습니다."_김하늘





알립니다

날씨, 정부 정책 등 '정책투데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눈에 즐겨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정책 소식과 날씨 정보, 한글 맞춤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담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 이하 앱) '정책투데이'를 제공한다.

정책투데이 앱은 정부, 연구기관, 통신사가 함께 참여해 개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와 안드로이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2가지 종류로 만들어졌다.

SK텔레콤 'T스토어(tstore.c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보인 아이폰용 '미니공감' 앱은 이번에 개발된 정책투데이 앱으로 변경돼 업그레이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홍보과 Tel 02-3704-9794

녹색생활 관련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주세요!

녹색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참가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공모 분야 | 자유(게임, 실시간 정보 제공, 다이어리 등)

접수 기간 | 7월 20일까지

접수 방법 | 참가 신청서, 아이디어 제안서 등을 작성해 그린스타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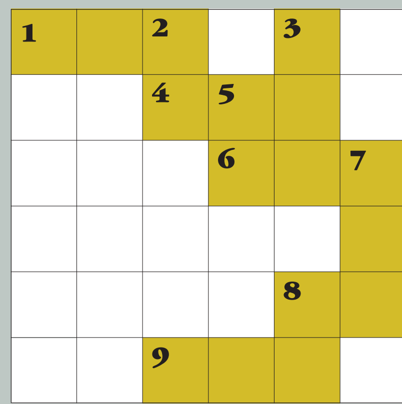
시상 내용 | 대상 1명, 금상 2명 등 18명에게 소정의 상금 지급

수상자 발표 | 8월 4일 예정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Tel 02-509-7980
그린스타트 greenstart.kr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 연락처와 함께 7월 14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우리가 활동하는 근원이 되는 힘. 물리학에서 기본적인 물리량의 하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운동, 위치, 열, 전기 등. OOO 절약.
4. 이것 찬합에 담아 먹는 우리 고유의 음식을 이르는 말. 둘레의 여덟 칸에 각각 여덟 가지 음식을 담고, 가운데 둥근 칸에는 밀전병을 담아 두어 둘레의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전병에 싸서 먹죠.
6. 옛날 주로 거리나 시골 장터에서 악기 연주와 곡예로 사람을 끌어모아 약 따위를 팔던 사람.
8. 물의 온도.
9. 올해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도시인 토론토가 있는 나라.

세 로

2. 태양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행성. 표면적은 약 5억2천만 제곱킬로미터, 70퍼센트가 바다.
3. 여러 동업자가 함께 모여 판매하는 시장.
5.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만 쓰고, 아껴 쓰고…. 지구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고, 건강도 살리고….
7. 한국형 기동 헬기의 이름. "OOO은 독수리, 참수리, 흰죽지참수리, 검독수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OO'에 숫자 백(百)을 뜻하며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 'O'이 덧붙은 말이다."
8. 쓸데없이 말수가 많은 것. '미녀들의 OO.'

〈Weekly 공감〉 65호(6월 2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나이지리아 **4** 수자 **6** 돌풍 **8** 부부젤라 **9** 니은

세로 2 이정수 **3** 아르헨티나 **5** 자블라니 **6** 돌부처 **7** 풍부

〈Weekly 공감〉 65호 '공감 퍼즐' 당첨자

권태양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박원동 · 인천 남구 도화2동
서상현 · 대전 동구 대성동
이정애 · 강원 정선군 신동읍
장준환 · 경기 시흥시 대야동

차별 없는 일터… 배려하는 사회!

김미숙 고용평등 홍보대사

올해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먼저 배려하는 등 사회의식의 전반적인 성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이제껏 직장생활 한 번 해보지 않고 큰 고비 없이 연기생활만을 해온 저에게 사실 '고용평등' '고용차별' '비정규직' 하는 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딴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용평등 홍보대사가 되고 나서 제 주변을 돌아보니 절대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제가 출연하는 드라마 〈이웃집 웬수〉의 촬영현장을 보더라도 우리 배우들은 촬영 틈틈이 밥도 챙겨먹고 적절히 휴식도 취할 수 있지만, TV 화면 뒤편의 제작진은 끼니도 거른 채 철야작업으로 고생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촬영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결혼이나 출산 후 업무공백을 이유로 구조조정 1순위로 내몰린 여성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력서 한 장 내기도 어려운 어르신들, 장애가 있어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입사를 거절당한 장애인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 등 여러분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들입니다.

직장인은 대개 잠자는 시간을 빼면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일터에서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여러 유형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설령 직장 내에서 차별대우를 받더라도 일터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현실적 고충을 해소하고자 2010년 4월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이 출범했고, 제가 고용평등 홍보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원이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기업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컨설팅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해소하려 막 첫발을 내디딘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은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글 · 김미숙(탤런트)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김규연 부산 북구 화명3동

1. '성적 고민? 입시 달인 교사들에게 물어봐' 기사를 읽고 아무래도 입시상담은 고교 현장에서 입시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잘해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EBS의 입시상담 게시판에서 진학지도를 해본 현직 교사들이 무료로 학습 방법과 입시생들의 고민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게 상담하고 답변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입시상담보다 유익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2. '인류 미래 책임질 대한민국 국가과학자'를 읽고 한 국가의 성장은 과학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에도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와 업적을 내놓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과학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여겨집니다.
3. 여름방학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체험과 하계캠프들이 많은데, 비용이 적잖게 들어갑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하계캠프 행사들을 소개했으면 합니다.

우도형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1. '한식 세계화, 맛다른 주장' 기사를 읽고 우리의 전통음식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때 고유의 맛과 특성이 희석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음식을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기초·원천연구는 國富의 뿌리' 기사를 보면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기초과학에 바탕을 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과학은 진정 우리 과학의 뿌리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3.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선전한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축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지면이 있었으면 합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7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SAVE ENERGY, SAVE KOREA'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heal the world

much brighter than tomorrow

Let us dream of tomorrow where we can truly love from the soul, and know love as the ultimate truth at the heart of all creation

월드컵이 끝나면 사라지거나 버려졌던
Red shirts가 만드는 위대한 기적!

Red shirts make a better place

티셔츠의 기적

Children show me in their playful smiles the divine in everyone. This simple goodness shines straight from their hearts and only asks to be lived.

for you and for me

we miss you michael

나의 응원이 한 아이의 응원이 됩니다.
나의 체온이 한 아이의 체온이 됩니다.
나의 기운이 한 아이의 기운이 됩니다.

한 철 입고 버려지는 Red shirts.
이 붉은 티셔츠가 모아져 제3세계 어린이들의 삶을 도와줍니다.

make a better place

아름다운가게 전국 매장에 방문하셔서 Red shirts를 기부해주세요!

*티셔츠와 함께 다른 기증품도 OK

▶ 기간 : 2010년 7월 1일 ~ 7월 31일 ◀

주최 : FOR YOU N FOR M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후원관련 문의: 02) 555 - 3738
운영관련 문의: 02) 555 - 8681

참여단체 : 아름다운가게

기부관련 문의: 1577 - 1113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http://www.foryounforme.com/
http://www.beautifulstore.org/ (매장 위치 안내)

티셔츠의 기적 검색 | 티셔츠의 기적 검색 | 티셔츠의 기적 검색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6월 27일 폐막식에서 세계경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듯 활짝 웃고 있다. 앞줄에 이명박 대통령, 맨 뒷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이 보인다.

G20 서울에서 만납시다

이명박 대통령,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중미 순방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침으로써 G20 서울 정상회의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경제협력의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G20의 글로벌 리더십이 강화됐고, 오는 11월 개최될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6월 26, 27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지역대표 초청국, 지난해 열린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참가국(스페인, 네덜란드)과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7개 국제기구 등이 참석했다. 지역대표 초청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베트남 ▲아프리카신개발협력계획(NEPAD) 의장국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말라위 등이다.

토론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위기 극복과 균형성장을 위한 이전 G20 정상회의 결정사항과 이에 따른 실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세계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의장 이 대통령, 선도 발언 등 논의 방향 제시

"우리는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이후 첫 회의를 토론토에서 개최했다"고 한 정상선언문은 서문과 본문(5개 분야), 3개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정상선언문 서문은 이어 "우리는 그간 성과에 기초해 경제 성장과 충분한 일자리 회복, 금융시스템 개혁 및 강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다"며 "유례없는 재정·통화 부양책 국제공조는 민간 수요와 대출 회복에 주요한 구실을 했다.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확대는 경제위기가 취약층에 미친 영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보호주의 저지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왔다"고 그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음을 평가했다.

정상선언문은 이어 "중요한 도전과제들이 남아 있다. 경기 회복이 균등하지 않고 취약하다. 실업과 경제위기의 사회적 영향이 여전히 광범하다"며 "경기회복 강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견고한 민간 수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건전화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 참석… 기업 진출 확대 적극 추진

서문에 이어진 본문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후변화, 에너지 보조금, 반부패, 최빈국 지원, 기타 이슈와 향후 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속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Framework) ▲금융 분야 개혁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차기 개최국 정상이자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 공동의장이기도 했던 이 대통령은 토론토 정상회의 중 선도 발언 등을 통해 논의 방향을 제시했고, 특히 재정 건전화 추진과 경기 회복세의 모멘텀 유지를 다룬 균형 잡힌 메시지가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도록 유도했다. 또 화석연료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보조금 합리화 논의를 주도했으며, 마무리 세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개최 등 준비계획을 소개했다.

토론토에서 소개된 서울 정상회의 의제는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국제금융기구(IFI) 개혁 ▲개발 ▲무역 ▲에너지 ▲반부패 등 8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G20 정상회의 폐막 이후 토론토를 출발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중미 순방에 나서 6월 29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제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등 SICA 정상과 정부 대표들은 한국과 중미 8개국이 한국 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 이 대통령은 토론토 정상회의 중 선도 발언 등을 통해 논의 방향을 제시했고, 특히 재정 건전화 추진과 경기 회복세의 모멘텀 유지를 다룬 균형 잡힌 메시지가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도록 유도했다. 또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비즈니스 서밋 개최 등 준비계획을 소개했다. ”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번 회의가 한·SICA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SICA 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한국의 SICA 역외 옵서버 가입 의사를 표명했고 SICA 정상들은 이를 환영했다.

SICA 정상들은 역내 치안 불안 수준에 우려를 표명하며 내년에 개최되는 '중미치안전략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지지해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對)중미 치안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SICA 정상들은 한·SICA 관계 심화를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보기술(IT), 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중미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SICA 회원국 정상들은 한국이 SICA 회원국 국민들의 생

G20 서울 정상회의 8개 주요 과제

분야	과제
균형성장 협력체계	개별 국가별(Country Level) 정책대안에 합의
금융안전망	재무장관들, 구체적 정책대안 준비
금융규제	은행 자본과 유동성 규제 기준 마련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대응을 위한 구체적 정책 권고안 마련
국제금융기구(IFI) 개혁	국제통화기금(IMF) 쿼터개혁 완료, 기타 지배구조 개혁 병행 추진
개발	워킹그룹(WG)을 통해 다년간 이행계획 수립 보고
무역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표의 동향 보고, 정상 간 향후 추진 방안 논의 무역자유화의 고용·성장 영향 보고서 제출
에너지	화석연료 보조금 이행 결과 점검
반부패	WG 통해 구체 정책 권고안 보고



연합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과 중미 8개국 대표들은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활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우방국임을 인정하면서 특히 교육, 직업훈련, 농촌개발,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마지막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단된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간 FTA가 체결되지 않아 한국기업들이 멕시코 공공인프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입찰 참여 허용을 요청했고, 칼데론 대통령은 FTA체결 전이라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을 수행해 멕시코를 방문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마르티네스 멕시코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향후 원전건설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요청받았다. 오는 8월 마르티네스 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원전과 관련한 협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G

글 · 박경아 기자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 관련 주요 일정

일시	일정	장소
7월	G20 셀파(Sherpa · 장차관급) 회의	서울
9월	G20 재무차관 ·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광주
10월	G20 셀파 회의	미정
10월 22~23일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 10월 21, 22일 G20 재무차관 ·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경주
11월 11~12일	G20 정상회의	서울

반기문 총장, 이 대통령에 MDGs 기조연설 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오는 9월 20~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6월 26일 반 총장과 만나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개발과 환경 등 주요 국제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같은 제안을 받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 총장은 한국이 개발 의제에 있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개발 의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유엔에서 기후변화와 개발 의제를 함께 다룰 유엔 고위급 패널을 발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주창해 지난 6월 서울에서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유엔 고위급 패널이 2012년 유엔 환경정상회의와 연동될 것이라고 밝힌 반 총장은 녹색성장을 주창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10년마다 개최되는 유엔 환경정상회의는 1992년 리우 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 이은 회의다.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개발 등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국제사회가 지향할 비전과 규범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천안함 공격 北 비난… 한국 정부 노력 지지”

G8·中美 정상 등 규탄 성명 잇따라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헌츠빌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8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46명이 비극적으로 희생된 천안함 침몰을 가져온 지난 3월 26일의 공격을 개탄한다”고 밝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인양되고 있는 천안함 함미.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공분하는 세계 정상들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정상은 천안함에 대한 공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다국적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는 천안함 침몰을 일으킨 공격을 비난한다”며 “북한은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적대적인 위협도 삼가라”고 요구했다.

‘천안함’ 국제법·유엔헌장 존중하며 해결돼야

정상들은 특히 천안함 공격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한 “북한의 공격은 동북아 안팎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유엔 제재를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G8 공동성명은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이뤄졌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G8 정상회의 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G8이 한국을 지지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미 7개국 정상들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을 규탄하는 동시에 한국의 사태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특별선언문을 발표했다.

특별선언문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대통령과 정상 대신 참석한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 벨리즈 고위 대표가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공격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선언문은 또 이 지역의 평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SICA 정상, 부통령 및 고위 대표들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가 달성되기를 희망했다.

앞서 유럽의회도 6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논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韓美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합의

우리의 필요에 따른 능동적 선택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늦춰진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으로 넘어온 상태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논의돼온 전작권 전환 일정 연기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 1일로 늦춰진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 26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이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2015년 12월 1일 우리 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시내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출 것을 공식 요청했다.

변화된 안보환경 등 고려 3년 7개월 늦춰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고 두 정상은 실무작업을 진행토록 한미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 **전작권 전환 시기는 ▲우리 군의 정보 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완료 ▲2012년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선과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을 감안해 2015년으로 결정됐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군의 정보 획득, 전술지휘통제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완료 ▲2012년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선과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우리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확고한 한미동맹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가설을 전면 부인했다.

전작권 전환은 2007년 2월 한미 두 나라가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환 시기 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월부터 두 나라 간에 본격적인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1994년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정전협정과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G

글 · 김종원(국방일보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일지

1950년 7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유엔군사령관에게서 작전통제권 인수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5년 9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제안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전시작전통제권 2012년 4월 17일 전환과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합의
2009년 4월	북한, 장거리로켓 대포동 미사일 발사
2009년 5월	북한 2차 핵실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논의 시작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합의
2010년 7월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예정)

전시작전통제권, 이것이 궁금하다

2015년 12월 1일이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럼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들여다보자.

전시작전통제권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데프콘(전투준비태세)' 3단계가 발령되면(평소 4단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군작전 통제권이 넘어간다.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관이 6·25전쟁 발발 이후 갖고 있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함께 넘어갔다. 이후 우리 군의 자주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2015년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된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합의된 이후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새로운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실시해온 한미 연합훈련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UFG 훈련도 2015년까지 계속된다.

'2+2' 회담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회담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2'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올 7월 열려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일정 등을 포함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상작전사령부 우리 군의 역할 확대에 부합한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1·3군사령부를 통합하여 만들게 될 작전사령부다. 당초 2012년까지 창설할 계획이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2015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육군의 제2작전사령부(대구지역)와 함께 실질적인 우리 군의 전작권 행사 주체가 된다.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전작권 전환 연기는 좀 더 충실한 전환을 위한 결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배경

안보 불안정 시기의 전쟁 억지력 강화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남은 준비기간 동안 한미 전작권 전환 후에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다.



동아DB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게 될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최근의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증가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미 두 나라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 차원의 협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인데 현재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SCM과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전작권 전환 과정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또 국내 안보단체를 필두로 제기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주장도 협의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돼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연기 서명운동이 현재까지 1천만명을 넘어섰다.

군사적 준비·주변국 동향 등 종합 분석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안보 공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한 기지 이전 일정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에서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연기 시기로 2015년 12월 1일을 잡은 것은 한국군의 독자작전 수행 능력을 보완하는 군사적 준비와 주변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을 위한 상황 인식에 결정적인 변화를 줬다. 또한 실제 연기 시기를 선택한 데는 군사적인 준비 상황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정치적 일정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2012년 전작권 이양이 가장 나쁜 상황"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6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브리핑에서 연기 시기를 2015년 12월로 결정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 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이 2015년이면 확보될 수 있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김 수석의 설명이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면서 유사시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 감시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한국군의 시각이다.

> **한미 양국이 연기 시기로 2015년 12월 1일을 잡은 것은 한국군의 독자작전 수행 능력을 보완하는 군사적 준비와 주변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실제 연기 시기를 선택한 데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정치적 일정도 고려됐다.**

현재 한국군은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 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다. 한국군은 2014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GBU-28)를 비롯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GPS유도폭탄(JDAM)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도입해 구축하는 작전통제소도 2012년쯤에나 완성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 육군이 2개의 작전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이 2015년이라는 것도 연기 시기를 선택하는 배경이 됐다.



동아DB

지난 3월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2010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병대원들이 도심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은 2015년까지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현재 대구 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의 작전사 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2012년쯤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사와 군수,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추는 데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창설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애초 전환 시기였던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 러시아의 대선이 있고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가 끝난다. 북한이 김일성 탄생 1백 주년의 해라며 '강성대국의 대개막'을 선언한 것 등도 고려됐다.

한국과 북한, 주변국의 이런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한미 모두 2012년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G

글 · 김종원(국방일보 기자)

"앞으로 5년… 완벽 준비 후 이양받아야"

2007년 전작권 합의 당시 국방부 장관 김장수 의원

한미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2007년 전작권 합의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의원은 '적절한 결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당시로선 2012년이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경제위기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예정된 일정대로 전작권을 받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우리가 가져와야 할 우리 군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2012년에 가져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은 자신의 국방장관 시절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으로 합의한 데 대해 "당시 합의는 2011년까지 우리 군이 '최소 필요조건'을 갖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로선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당초 예정대로 전작권을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으로 "평양 이남의 적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정찰·감시능력, 획기적인 정보우위와 전투력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전술 지휘통제(C4I)체계, 유사시 북한 핵시설 타격을 위한 정밀유도무기(PGM) 확보, 효율적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군 구조조정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2007년 2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이에 맞물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합의한 주역이다. 김 의원은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당당하게 악수하던 모습이 널리 알려져 '꼿꼿장수'란 별칭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전작권 전환의 중요 변수는 외부 여건보다는 내부 조건입니다. 2015년이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2015년 12월 실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초 전작권 전환 합의는 2011년까지 최소 필요조건이 갖춰진다는 것을 전제한 합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불가피하게 우리의 준비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가 시작됐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실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는 미 국방부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일입니다. 우리 측에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일로 보아야 합니다.

전작권은 왜 중요합니까.

지금과 같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 의지가 잘 반영되도록 한미연합체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게 될 때는 주한미군 전력과 증원전력의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미 군사동맹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요.

전작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전과 같은 규모(2만8천5백명)로 우리나라에 잔류합니다. 또 유사시 한반도에 파병이 가능한 증원전력 규모도 65만명으로 양국 간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작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한미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주한미군 전력과 증원전력의 활용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과 같이 특정지역에 주둔군을 두기보다 지역에 예속되지 않은 기동군을 선호합니다. 기동군이 전략적 유연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해합니다.



조영철 기자

김장수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를 계기로 더욱 충실하게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전작권을 군사적 주권과도 연계해 생각합니다.

일부 진영은 편협한 시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안보란 우리 능력만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군대만으로 싸우겠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럽과 미주 대륙 어디를 봐도 서로 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해 유사시 돕도록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열국지〉를 보아도 패권국가끼리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군사적 주권에서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맹체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신뢰 구축입니다. 반대로 안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전작권을 미군 측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우리 군이 전작권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작권 전환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더 이상 연기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소리를 한다고 불신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준비가 덜 된 채 전작권을 맡게 되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만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할 만한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예정대로 전작권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사실 전작권 전환의 중요 변수는 외부 여건보다는 내부 조건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변화는 몇 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이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실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양해, 그리고 군의 노력,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전작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접하고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천안함 피격사건 다음 날 언론을 통해 '잠수함으로 인한 어뢰 공격'이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북한의 공격 이외에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등에 온갖 유언비어와 음모론이 난무합니다. 명백한 진실마저도 자신들이 설정한 인과론에 그럴듯하게 꿰맞추면 그럴싸한 음모론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유언비어와 음모론을 없애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이 그러한 유언비어와 음모론을 없애는 첩경입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한미 FTA 재협상 아닌 실무협의”

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쟁점 해소 등 비준 일정 밝혀

7월 1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 만 3년을 맞았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진전이 없던 한미 FTA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오는 11월까지 실무협의를 마무리지어 미 의회 비준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동아DB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토론토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의회 비준을 받기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상하 양원 의원 앞에서 연설하는 오바마 대통령.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준 일정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 26일 토론토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렬되기를 원한다”며 협상을 타결한 지 3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 이후 1, 2개월 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미 의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美 무역대표부에 실무협의 착수 지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정’이란 용어를 사용해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이 대통령에게



동아DB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오른쪽)는
한미 FTA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를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왼쪽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

약속한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에게 즉시 한미 FTA에 관한 실무협의를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한미 양국이 타결한 지 만 3년이 되도록 양국 의회가 비준을 미뤄온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다. 미국 내에서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측은 한국이 자동차 수입에 대해 보이지 않는 장벽(Barrier)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논의가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건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하나의 '조정(Adjustment)'이라고 얘기했다. 기존 협정문에서 점을 지우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한미 FTA 협정문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車 수입 위장장벽 없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안 해"

김 본부장은 "이번 협의는 '뉴 디스커션(New Discussion)'이 아니라 실무협의"라면서 "내용은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실무책임은 내가 맡게 될 것"이라며 재협상이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수입과 관련된 위장된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것을 가지고 '위장된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김 본부장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리지만

한미 FTA 협상 일지

2003년 8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 마련
	중·장기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상정
2004년 11월	한미 통상장관 회담(칠레),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2005년 9월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한 검토
2006년 2월	한미 FTA 추진 발표(워싱턴)
2006년 6월 ~2007년 3월	한미 FTA 제1~8차 공식협상(서울, 워싱턴 등지)
2007년 3월	한미 FTA 고위급 협상(워싱턴)
2007년 3, 4월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서울)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서울)
2007년 6월	한미 FTA 서명(워싱턴)
2007년 9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2008년 10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2009년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개방할 경우 판매가 늘어날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계기가 될지는 미국도 심사숙고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USTR에 직접 한미 FTA 논의를 지시한 만큼 한미 FTA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좋은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11월이란 시기에 급급해 (FTA 타결) 내용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일각에서 "한미 FTA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미국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선거 전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의제를 다루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굳이 한미 FTA를 빨리 처리하겠다고 미국 측에서 마뜩찮아 하는 전작권 연기 합의와 바꿔치기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한강에만 적용되나 사실상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논리가 다른 강 구역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본안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4대강살리기 중단할 이유 없다"

서울고법 '한강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

법원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4대강살리기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의 경모 씨 등 6천1백80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한강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민소송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다.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정부의 '한강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3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소송단은 한강뿐 아니라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대해서도 사업 취소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타당성 부족… 효력정지 등 사업 중단 부적절해

서울고법 재판부 판결의 핵심은 경 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긴급한 예방 필요'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엔 '근거'와 '법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도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식수 오염 등 환경상의 이익 관련 손해 ▲침수 피해로 인한 손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아DB

당시 재판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통상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부분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남은 본안소송 등 판결에 영향 끼칠 전망

아울러 재판부는 "한강에 설치되는 '보(洑)'는 수문을 개방해 물을 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홍수 피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항소심 고법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의 소송 제기 절차 및 집행정지 처분의 범위에 대해서도 국민소송단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재판부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 직간접적 파급효과 및 정책적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본안소송에 앞서 임시 구제 방법인 효력정지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역시 결정문에서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말한다"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공익상 손해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한강에만 적용되나 사실상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논리가 다른 강 구역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본안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미 지난 5월에도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고모 씨 등 6백81명이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전주지법 역시 수질개선작업과 친환경적 준설공사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식수원 오염 등의 소명은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G

글 · 유재영 기자

4대강살리기 사업 수해 대비 다각적 대책 마련

국민소송단이 4대강살리기 사업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집중적으로 논란을 삼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洑) 설치에 따른 홍수 피해다. 특히 올해는 하천 내의 보 구조물을 설치하는 시기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4대강추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수해 대비 행동요령 등 매뉴얼을 작성했으며, 관계기관들의 합동 도상·현장훈련을 실시한 상태다. 사업 발주청들도 수차례 수해 대비 취약 지점에 대한 자체 및 합동점검을 마쳤다.

또한 수해가 예상되는 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엔 홍수상황실을 운영하고 보 구간 현장에 웹 카메라를 설치해 수시로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홍수통제소에서도 준설 등으로 확장된 홍수 소통 단면을 반영한 새로운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실시간 운영 중이다. 보 설치를 위해 세워둔 가물막이는 홍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16개 중 13개를 철거했다. 나머지 함안보(11.5미터→5미터), 합천보(14.1미터→8미터), 강정보(24.5미터→15.5미터) 등 3개 보는 높이를 낮췄다.

더욱이 하천에서 약 1.2억 세제곱미터의 흙을 준설해 사업 전보다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홍수 조절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추진본부는 이 같은 '물그릇' 확보로 강변 저류지 전체(0.5억 세제곱미터)의 2배에 달하는 홍수 조절능력 향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강 전 구간의 총준설량은 5.2억 세제곱미터다. 이는 안동댐(홍수조절용량 1.1억 세제곱미터) 5개와 맞먹는 홍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준설에 따른 통수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있는 준설토를 홍수기 이전에 모두 반출을 완료하고, 강 바깥의 농경지 리모델링과 배수로 정비를 통해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 축구가 세계 축구무대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2010 남아공월드컵 한국 대표팀.

4년 뒤 브라질에선 8강 가자!

남아공월드컵 대표팀, 원정 사상 첫 16강 달성

2010 남아공월드컵에 출전했던 태극전사들이 한국 축구 역사상 첫번째 해외 원정 16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하고 금의환향했다. 이번 대회에서 치른 4경기 성적은 1승1무2패.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2002 한일월드컵을 제외하고 원정에서 치른 월드컵 중 가장 돋보였다. 한편으로는 개선해야 할 숙제도 적잖이 노출한 대회였다. 보름간의 잔치를 유쾌하게 즐긴 대표팀의 활약을 결산했다.

이번 대회로 한국 축구는 세계 축구의 중심으로 한 발 가까이 다가섰다. 유로 2004 우승팀인 그리스를 완벽하게 제압했고, 선수들 스스로도 상당히 버거워했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전에서도 먼저 실점을 하고도 두 골을 뽑아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비록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에 1-4로 대패하긴 했지만 후반 30분까지 경기를 대등하게 끌고 갔다. 16강전 상대였던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전에서도 시종일관 강한 압박과 스피드 있는 공격으로 상대의 볼 점유율을 떨어뜨리며 드라마틱한 경기를 연출했다. 이처럼 대표팀은 탄탄한 팀워크, 뛰어난 체력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개인기가 부족한 단점을 극복해냈다.

한국팀을 상대했던 그리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네 팀 관계자들은 “한국은 개인이 아닌 팀으로 매우 강하다. 좋은 축구를 구사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했다. 특히 16강 상대였던 우루과이 기자들도 “사실 한국과의 경기를 낙관했지만 쉽지 않은 경기였다. 한국팀이 좋은 기량을 과시해 우루과이가 큰 위협을 받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세트플레이 등 새로운 득점 방정식 해법 풀어

이제 우리 축구팬만이 아닌 세계 축구팬들에게서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기에 ‘2퍼센트’ 부족했던 평가는 종지부를 찍는 분위기다. 한국 축구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접 확인한 국제축구협회(FIFA) 관계자들도 한국이 조별리그 최종전인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를 치르기 전

부터 한국의 16강 진출을 낙관했을 정도였다. 앞으로 한국은 월드컵 진출 단골손님, 다크호스가 아닌 진정한 강팀이라는 인상을 세계 축구팬들에게 강하게 각인시켰다.

FIFA 올타임월드컵 랭킹도 처음으로 20위대인 27위에 올라섰다. 한국은 2006 독일월드컵 때까지 월드컵 랭킹이 30위였으나 이번 월드컵 선전으로 순위가 3계단 상승했다.

허정무 사단은 원정 월드컵 첫 16강 진출이라는 대기록 이외에도 다양한 월드컵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우선 예상치도 못했던 골이 봇물처럼 터졌다. 월드컵 직전만 해도 매 경기 골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선뜻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과 코칭스태프들도 쉽게 오지 않는 적은 찬스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골을 성공시킬 것인가 우려했던 게 사실. 그러나 오히려 수많은 찬스에서 여러 번 골이 터졌다. 허공에 날린 무수한 기회를 아쉬워해야 할 판이다.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기록한 5골은 한국이 역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넣은 골 중 가장 많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필두로 박주영(AS모나코), 이청용(볼턴) 등 유럽 삼총사가 상대 진영에 맹공을 퍼부었다.

연합

박지성은 그리스전에서 단독 드리블로 골을 성공시키며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3회 연속 골을 기록한 주인공이 됐다. 또한 통산 3골로 안정환(다롄 스더)과 태극전사 월드컵 최다 골 타이기록을 세웠다. 이청용도 절묘한 골 감각으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전에서 2골을 기록했다. '골 넣는 수비수' 이정수(가시마)도 알찬 2골을 터뜨렸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스트라이커 발굴 등 과제로

세트플레이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도 우리에겐 큰 수확. 이동국, 안정환 등이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해 공격력 부재를 걱정했지만 코너킥, 프리킥 등 세트플레이에서 4골을 성공시켜 대표팀의 새로운 득점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허정무호(號)의 탄탄한 경기력 뒤에는 절묘한 신구 조화도 한몫했다. 경험 많은 '캡틴' 박지성과 '꾀돌이' 이영표(알 힐랄) 등이 후배들에게 월드컵 노하우를 전수하며 팀의 무게중심을 잡았다. 이들은 이청용, 기성용(셀틱), 정성룡(성남), 김재성(포항) 등 월드컵 경험이 전무한 선수들을 잘 다독이며 스스로가 가진 실력을 1백 퍼센트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허정무 감독이 강조했던 '소통'의 효과도 16강 진출의 주춧돌이 됐다. 허 감독은 코칭스태프와 선수, 선수와 선수 간 교감을 매우 중시하며 팀을 지휘했다. 전술과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도 선수들의 의견을 적잖게 반영했다. 그러면서 차츰 선수들은 그라운드 안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 전술 변화에

동아DB



이번 월드컵을 통해 한국 축구의 '보배'로 떠오른 이청용 선수.

따른 대처법을 스스로 찾아냈다.

허정무 사단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네 경기 중 세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며 힘겹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먼저 선제골을 내준 탓에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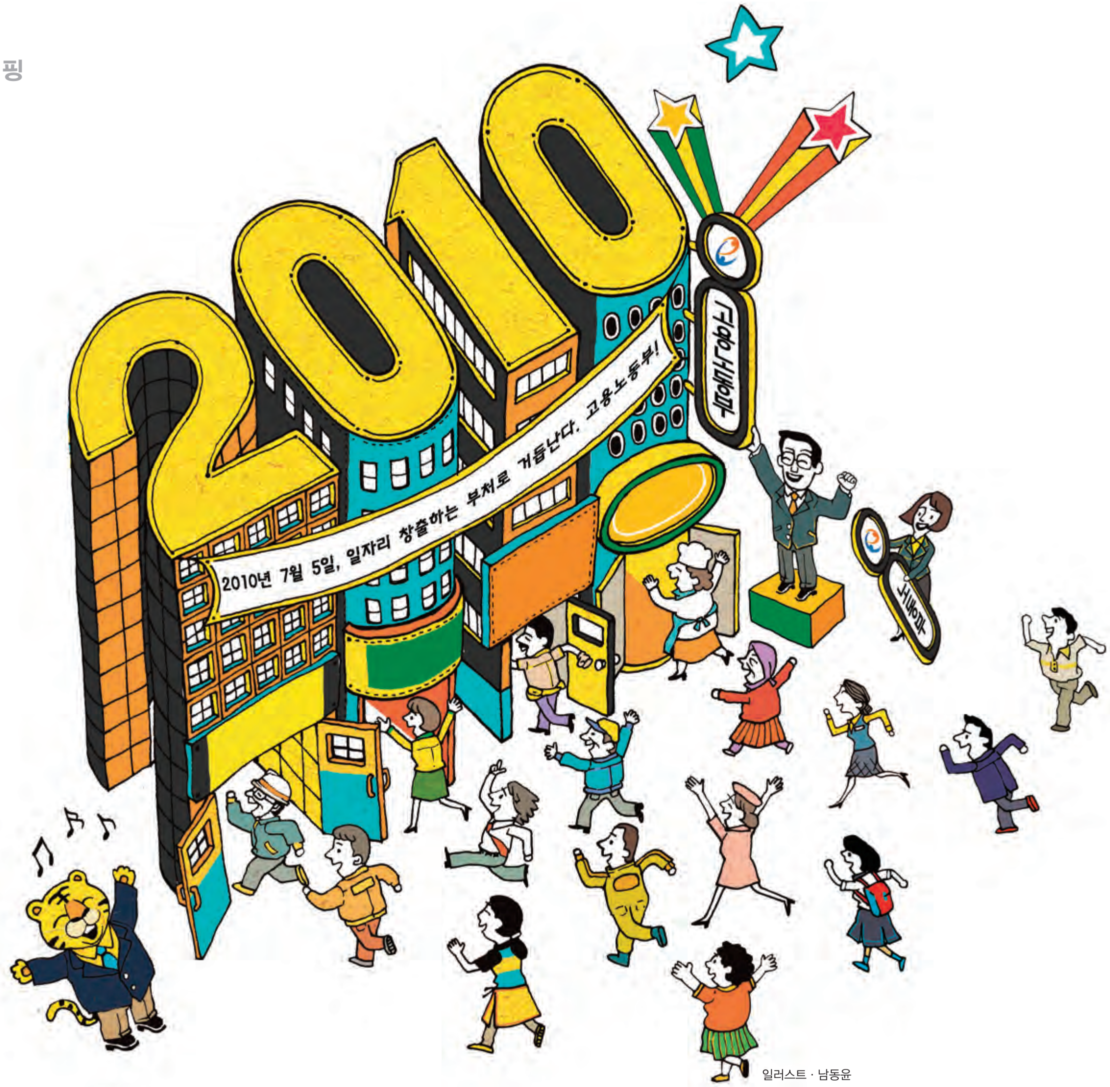
매 경기 실점 상황을 연출했던 오른쪽 측면 수비수 발굴의 필요성도 이번 대회에서 절실히 느낀 점이다. 박주영과 상승효과를 일으킬 스트라이커를 찾는 일도 과제다.

그럼에도 한국 축구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8강 진출에 도전해볼 만한 가능성을 이번 대회에서 확인했다. 일단 이청용, 기성용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젊은 선수들이 월드컵 무대에서도 자신의 기량이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는 결국 대표팀 내에서 박지성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도 경기력에 큰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치 선정이나 전진 패스가 강점인 조용형(제주)의 수비 조율 능력을 다시금 확인한 것도 큰 수확이다. 유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만약 해외 경험을 쌓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제2의 홍명보로 단단한 입지를 구축할 전망이다.

'진공청소기' 김남일(톰 토스크)과 확실하게 바통터치에 성공한 김정우(광주)의 강한 '포스'를 발견한 것 역시 대표팀의 크나큰 횡재다. 이처럼 알토란 같은 활약을 선보인 태극전사에게 해외 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차두리가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으로 이적했다. 조용형은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팀들이, 박주영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중·상위권 3개 팀으로부터 진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앞으로 태극전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유럽 구단들의 전쟁이 흥미롭게 전개될 전망이다. G

남아프리카공화국=글·최용석(스포츠동아 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국정 최우선 과제 '일자리 창출' 전력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다시 태어났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강조되는 역할과 정책을 살폈다.

"이제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다시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처로 거듭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정책을 해결하겠습니다."

7월 5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고용'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출범은 예사롭지 않다.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한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행정 여건의 변화와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질적, 양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노동국, 노동청 시절이던 1981년까지는 근로조건 보호, 노사관계 지도라는 전통적 노동행정의 집행 기능에 중점을 뒀으나 1981년 '부' 승격 이후 노동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해나갔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용정책이라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발전시켜왔다.

고용정책 추진 방향 '수요자·시장' 중심으로 변모

이제 고용이 전 국가적 난제(難題)가 된 시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정부 정책이 고용 친화적(Employment-Friendly)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지난 6월 23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출범과 2010년 고용노동정책 방향' 강연에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기존의 관념으로 보면 안 될 일들이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시대지만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장관은 50~65세 장년층인 시니어 세대의 취업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임 장관은 "이젠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며 "시니어 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주요한 역할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독립운동과 민주화투쟁의 시발점이 됐을 만큼 그 역사적 가치가 깊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런 노동운동이 점점 '성과 나누기'로 전락해 갈등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원만한 노사 상생을 위해 '성과 키우기'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맨 왼쪽)은 "취업애로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5일 열린 '청년이 보는 실업 및 일자리 창출 해법' 간담회 모습.

"노사정책 역시 고용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을 기점으로 노사문화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의 시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 추진

임 장관의 강연 내용에서처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다. 고용정책의 추진 방향이 '수요자'와 '시장'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예전 노동부의 주요 정책 대상은 '노사관계'였다. 즉 '일자리가 있는 국민'이었다.

그러나 이젠 '일자리가 없는 국민' '일자리가 있더라도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각 부처, 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백79개)의 종류와 전달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부처 간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던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고용창출사업, 청년 취업기능 확충사업 등으로 재정비하고, 청년층·고령자 뉴스타트 사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등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연계해 취약애로계층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했다.

그동안 고용 문제에 대처해왔던 해결 방식도 달라진다.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선진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해 다양한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시장 친화적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앞장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노사정책 역시 고용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성과 배분 중심에서 성과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는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을 기점으로 노사문화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의 시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출범 이전 조직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인사제도 혁신과 정책컨설팅 중심의 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책들을 추진력 있게 이끌기 위해서다.

임 장관은 "고용노동부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3자녀 이상 車 살 때 취득세 등 전액 면제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28개 행정기관에서 변경 적용할 총 3백 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소개돼 있다. 그중 세제, 금융, 부동산, 복지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소개한다.



일러스트 · 이우정

세제·금융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혜택이 확대된다. 올해 7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한 대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기존 50퍼센트 면제에서 전액 면제로 바뀐다.

이처럼 면제폭이 확대됨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퍼센트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취득·등록세가 2백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취득·등록세 1백만원뿐 아니라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 2012년 말까지는 전액 감면된다.

소주, 막걸리 등 모든 주류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의 경우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함량, 3가지 이상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개월 내 제조나 출고 정지 처분을 받는다.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의원, 일반 교습학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 외에 7월 1일부터 추가로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은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

지난 6월 13일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대상도 확대됐다. 여신법 개정 전에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해 세금, 범칙금 등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제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은행은 오는 11월 18일부터 고객에게 이른바 '꺾기(대출 시 예금 가입 강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5천만원 이하, 임원과 직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소비
상조업 소비자 보호장치 크게 강화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상조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경영부실이나 불건전 운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부당지원행위, 부당거래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때만 포상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또는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도 포상금을 준다.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사업 범위가 기존 농수산물, 축산물 등 식료품에서 추가로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고용·노동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용 시 고용보조금 지원

지금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어 신용회복이 더 힘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채용 추천서 발급, 신용보증상품 가입 유도 등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5백40만원) 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채용 인원 1인당 2백70만원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약 2백억원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5백억원으로까지 확대한다.

고용 친화적(Employment-Friendly) 정책을 추진하기


동아DB

오는 12월 22일부터 모든 수입 쇠고기(부산물 포함)에 식별번호를 달아 판매해야 하는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2011학년도 외고, 국제고 입시전형에서 도입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위해 노동부의 명칭이 7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잡영 플라자(Job-Young Plaza) 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

농식품
음식점 규모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해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8월 5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를 확대한다.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 앞으로는 음식점 규모(현행 1백 제곱미터 이상)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달용 치킨도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막걸리 등 주류와 식용 소금처럼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모든 수입 쇠고기(부산물 포함)에 대해 유통이력제를 시행한다.

유통이력제는 수입, 포장, 판매 등 모든 유통 과정에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 수입유통식별표를 달아야만 쇠고기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 쇠고기의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회수해 대처할 수 있다.

부동산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급 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불법 양도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양도를 규제하는 법을 시행한다.

지난 6월 말부터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5년·10년 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주택 당첨자로 관리돼 일정 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받는 것. 단, 사업 주체에게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7월부터는 도시에 소규모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가 완화된다.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백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형으로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 요건이 간편해진다. 특히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이른바 '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준주택이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사업자가 준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준주택 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욕실 설치 기준을 완화해도 되지만, 고시원은 피난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복지
발달지체 영·유아에도 무상보육료 지원

2011학년도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 학생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다.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 전원을 선발하며 토플, 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던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면접은 독서기록, 학습계획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평가하고 영어면접이나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을 할 수 없다.

저소득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 이들 화물차 운전자 자녀의 경우 고등학생 1천2백명에게 각각 50만원, 대학생 1천4백명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운송 중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7월부터 매달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액수는 기초급여 9만원 및 부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발달장애 영·유아에게도 7월 1일부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해준다. 기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의 15가지 장애 종류에 지체장애를 추가해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해 2011년부터는 만 4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3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점점 늘려갈 예정이다.

행정·교통
범죄피해구조금 개선… 신청기간 10년으로 늘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8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될 수 없어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종래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했으나, 8월 15일부터는 위와 같은 요건을 삭제해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재산이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급 신청 기간 또한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대중교통시설 및 환승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환승 종합시스템(TAGO)이 모바일 기기에도 서비스된다. TAGO는 그동안 웹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스마트폰, IPTV 등 새로운 매체에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인천공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체크인 제도도 도입된다. 9월부터는 승객이 직접 해당 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탑승수속을 하고,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분야	변경 내용	시기
세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 · 등록세 및 농특세 비과세	7월 5일
	모든 술에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7월 1일
금융	신용카드 결제대상 확대	6월 13일
	'꺾기' 등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11월 18일
산업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9월 18일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시한 2년간 연장	2012년까지
노동·고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 시행	7월 1일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 지원	7월 1일
농식품	배달용 치킨 등 원산지 표시제 확대	8월 5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 22일
부동산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6월 말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지정	7월
교통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	9월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 승객 편의 제고	9월
복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7월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교육 확대	7월 1일
행정	결혼이주자 국적 취득 전에도 주민등록등본 기재	8월 15일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	8월 1일
교육·문화	외고, 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2011학년도
	숙박시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완화	7월
병무	현역복무 중 올림픽, 아시안게임 입상자 보충역 편입	7월 26일
	HIV 바이러스 감염인 징병검사 생략	7월 26일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포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전국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 도서관 등

녹색이 미래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푸른 생명으로 가득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하지만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우리의 터전인 지구는 조금씩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기에서 구하려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 녹색생활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온몸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녹색생활,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동아DB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월평균 30만원이 절약돼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회사원 김진아(40) 씨 부부는 요즘 녹색생활의 즐거움을 한껏 만끽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출퇴근길에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무엇보다 교통비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해도 전철역이 멀어 직장이 있는 서울까지 남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 집 근처에 경전철역이 들어서고, 역사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생겨 적절히 이용하고 있어요. 집에서 역까지는 자전거를, 직장까지는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한 달에 50만원이 넘게 들던 교통비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녹색생활 덕에 부부 금실도 더 좋아졌다. 김 씨가 야근하는 날에는 남편이 역사까지 자전거로 마중을 나오는데 그때마다 김 씨는 "드라마 〈풀하우스〉에서 해변의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주인공 비와 송혜교가 된 기분"이라며 흡족해했다.

녹색경제 환경 위해 에너지 절약·녹색소비 해야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를 따로 할 필요도 없어졌다. 오가며 걷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동안 저절로 살이 빠진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발걸음도 가뿐하고 마음도 흐뭇하단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퍼센트,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7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교통 부문이다. 따라서 김 씨 부부처럼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생활화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1세기의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온실가스 감축이다.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세계 평균기온은 지난 1백 년간(1906~2005년) 섭씨 0.74도 상승했고, 평균 해수면은 1961년부터 32년간 매년 1.8밀리미터씩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하다. 지난 1백 년간 기온은 세계 평균의 2배인 약 1.5도가 올랐고, 제주

녹색생활, Me First!

지구가 신음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동식물은 생존을 위협받고, 물과 땅은 메말라가고 있다. 지구를 지키려면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를 덜 쓰고, 친환경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 녹색생활이 뒷받침돼야만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제품 소비의 선순환도 가능하다. 이제 지구의 운명은 녹색생활에 달렸다.

의 해수면은 40년간 세계 평균의 3배인 22센티미터나 상승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정, 상업, 교통 등 비산업 부문이 43퍼센트를 차지한다. 산업 부문은 그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이를 줄이려면 기술 개발, 시설 대체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비산업 부문은 산업 부문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3~5배 적게 들고, 효과도 즉각 나타난다.

다만 국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지금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고효율·저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녹색경제 환경을 구현하려면 에너지 절약과 녹색소비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에너지 절약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 수단일 뿐 아니라 오일쇼크나 환율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의 96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대란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제품을 사서 쓰는 녹색소비는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상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촉매 구실을 한다.

그린스타트·탄소포인트제 등 도입 녹색생활 지원

정부가 저탄소 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함께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다각적으로 펼쳐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이룬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과 여성가족부의 위그린(We Green) 운동,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이 대표적이다.

가정과 직장의 자발적인 녹색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경제적 이익으로 돌려주는 탄소포인트제 같은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녹색소비 촉진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한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7대 실천 과제에도 생활 속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Me First(나부터) 녹색생활 정착' 과제를 포함시켰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민 개개인과 각 가정의 녹색생활 실천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녹색성장 정책 성공의 열쇠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동안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

조영철 기자



이마트 남양주점은 1회용 쇼핑봉투를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바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21세기의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온실가스 감축이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정, 상업, 교통 등 비산업 부문이 43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산업 부문은 산업 부문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3~5배 적게 들고, 효과도 즉각 나타난다."

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발대식 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위해 주부들이 해야 할 일은 에너지 절약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자체가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녹색생활 실천을 당부했다.

또 같은 해 8월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는 "녹색기술보다 중요한 게 녹색생활"이라며 "에너지 절약의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3분의 1 이상 감축할 수 있다. 절약은 제5의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경우 가구당 연간 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67만원을 아낄 수 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생활 속의 소소한 노력이 모이면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를 구하고, 막대한 에너지 낭비를 없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국민이 한마음으로 녹색생활 실천의지를 보여줄 때다. G

글 · 김지영 기자

조금만 발품 팔면 **탄소발자국**이 줄어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지구 구하는 에너지 절약방법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플러그를 뽑는 소소한 녹색생활이야말로 '지구 구하기(Save Earth)'의 첫걸음이자 밑거름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방법을 추천한다.



가정에서

홈에너지닥터에게 에너지 진단받자

무더운 여름철에는 다양한 전열기구 사용으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낭비요소를 찾아내 개선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홈에너지닥터를 이용하면 좋다.

홈에너지닥터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을 지도해주는 서비스 엔지니어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홈에너지닥터를 잘 활용해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실천한다면 전력소모량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절감할 수 있다. 홈에너지닥터에 관한 상세 정보는 그린에너지패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의 단열을 강화하자

집을 새로 짓거나 개조할 때 단열재를 시공하면 실내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주고 겨울철에도 적은 비용으로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건물 외벽에 시공하는 단열재만 85밀리미터 가등급으로 바꿔도 난방비를 연간 17퍼센트 정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등급은 단열재의 밀도로 가등급에 가까울수록 밀도가 높고 가격이 비싸다.

에너지 가계부를 쓰자

대부분의 가정에서 광열비(3.4퍼센트)와 교통비(9.4퍼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출액의 10퍼센트가 넘는다. 전기, 가스, 수도, 주유 등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사용량을 확인하면 에너지 사용량의 3퍼센트를 아낄 수 있다. 에너지 가계부를 작성할 때 그린에너지패밀리 홈페이지(www.gogef.kr)의 '에너지탄소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현재 에너지 사용현황과 절감방법, 기대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 계량기를 사용하자

스마트계량기(Intelligent Smart Metering)는 전자식 전력량계 등을 활용해 측정하거나 저장된 에너지 사용량의 관련 정보를 실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장치다. 실시간 전력사용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해 약 10퍼센트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낸다.

또한 양방향 통신 등을 통한 개별 가전제품의 소비량 모니터링이나 부하제어 등이 가능한 시스템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정부 주도로 다양한 보급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보급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용하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에너지(전력, 가스 등)를 사용하는 22개 품목에 대해 1~5등급으로 에너지효율을 구분해 표시하며,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 약 30~40퍼센트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개별 기기의 에너지 절감량은 미미할 수 있지만, 효율등급 대상 제품은 연간 1억3천만 대가 보급돼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제품 등 효율등급 대상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부착된 효율등급 라벨을 확인해 1등급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기전력 마크가 부착된 가전제품을 쓰자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데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부른다. 대기전력 소비량은 기기당 3.7와트 정도로 본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낭비돼 '전기 흡혈귀'라고도 한다.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 비용은 우리나라 가정 부문 전력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이므로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에 등록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마크가 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자동절전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자동절전 제어장치로는 멀티탭 형태의 자동절전 멀티탭과 콘센트 형태의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가 있으며 부하 등을 감지하거나 타이머를 작동시켜 자동으로 대기전력 낭비를 없앤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컨설팅 결과, 일반 아파트형 주택은 대기전력 차단을 통해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달 전기요금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에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활용하자

건물에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설치하고 싶은데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망설인다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ESCO는 에너지 절약 설비를 대신 설치해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다. 조명기기, 냉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건물주는 비용 부담 없이 ESCO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 시설을 갖출 수 있다. ESCO 등록업체 현황과 주요 투자분야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 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자

건물의 에너지 관리는 대개 설비 관리자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설비 관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 이럴 때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BEMS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으로 관리할 경우 절감 가능한 전체 에너지 양의 77퍼센트를 아낄 수 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도 BEMS를 도입해 연 3, 4퍼센트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있다.



메탈할라이드램프, LED 등 친환경 조명기기를 설치하자

가로등, 경관조명 등에는 메탈할라이드램프가 적당하다. 이 조명은 일반 가로등과 비교했을 때 약 20퍼센트의 절전효과가 있다. 엘리베이터 내부, 실내 주차장, 복도 등에는 24시간이나 장시간 불을 켜둬야 하므로 전력소비가 적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면 소비전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LED 조명기기는 즉시 점등되는 장점이 있으며 형광램프 등기구에 비해 수명이 6배 이상 길고 38퍼센트의 절전효과가 있어 경제적이다.

또 계단, 화장실,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의 이동이 적은 공간에는 인체감지 센서가 달린 점등 시스템을 설치하면 좋다. 자동센서형 조명등은 사람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만 불이 켜지므로 전기가 절약된다.

이중창이나 복층유리를 사용하자

건물에서 창호는 가장 열손실이 많은 부위로 일반 벽체에 비해 열손실이 7배 이상 많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6밀리미터 복층유리 창호를 에너지 절약형인 22밀리미터 로이(Low-e)유리 창호로 바꾸면 열손실이 줄어 14.1퍼센트의 냉난방 에너지가 절감된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로이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북쪽과 서쪽 창의 면적을 최소화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쿨비즈-웜비즈를 실천하자

냉난방 온도를 섭씨 1도 조절할 때마다 7퍼센트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실내온도를 과하게 설정하면 건강에 좋지 않지만 적정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면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토피, 호흡기 질환 등이 예방된다. 여름철 실내온도는 넥타이 풀기 등으로 26도 이상을, 겨울철에는 내복 입기 등으로 20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점심시간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끄자

점심식사 시간에는 최소 30분 이상 컴퓨터와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대로 두고 식사하러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방치하지 말고 사무실이나 층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 점심시간에 컴퓨터와 모니터의 전원을 일제히 끄면 전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자동절전 제어장치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 관련 기기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도로에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과 자전거 타자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25조원을 넘고, 매년 5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 될 수 있으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거리 여행은 열차나 고속버스로 하는 것이 혼잡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자. 자전거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가스를 전혀 뿜어내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건강에도 좋다. 정부에서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늘리고, 자전거를 빌려주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차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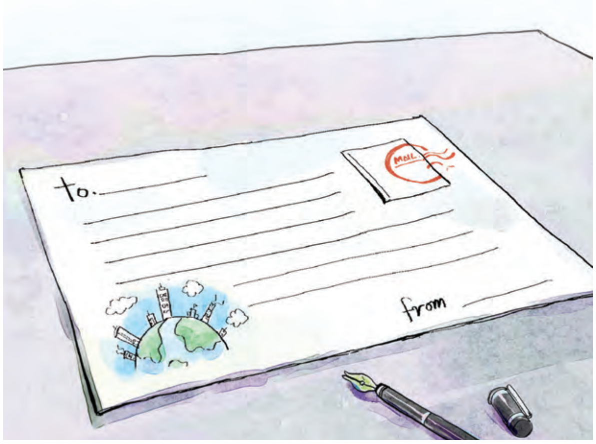
트렁크를 열어보면 불필요한 짐이 항상 들어있게 마련. 불필요한 짐 30킬로그램을 싣고 50킬로미터를 주행하면 50밀리리터의 연료가 더 낭비된다. 차량 무게가 1킬로그램 줄어들면 연비가 약 6퍼센트 늘어난다. 연료비와 에너지를 아끼려면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확인해 필요한 물건만 싣고, 적정량만 주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경제속도를 지키고 자동차의 관성주행을 이용하자

자동차를 몰 때는 공기저항, 엔진 특성 등을 고려해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은 60~80킬로미터의 경제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의 관성주행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내리막길이나 정지선을 앞에 두고 적당한 거리에서 가속페달을 더 이상 밟지 않으면 연료 소모 없이 운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관성주행을 이용하려고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N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다. 오히려 브레이크가 과열되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G

글 · 김지영 기자



에너지 절약 관련 주요 정보 사이트

에너지관리공단 www.kemco.or.kr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 제공
에너지&기후 정보센터 lib.kemco.or.kr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디지털도서관
수송 에너지 절약 bpm.kemco.or.kr/transport	자동차 공인 연비, 경제운전 방법 제공
건물 에너지 절약 www.kemco.or.kr/building/v2	효율등급 건물 리스트 및 건물 에너지 절약방법 제공
그린에너지패밀리(GEF) www.gogef.kr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 및 지역네트워크 정보 제공
탄소중립 zeroco2.kemco.or.kr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중립목표를 선언한 후 상쇄방안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제공
탄소캐시백 www.co2cashbag.com	탄소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해 에너지 절약 행동 및 제품구매를 장려하는 프로그램 제공
SESE나라 www.sese.or.kr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에너지교실 www.kemco.or.kr/class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정보 제공
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정보 제공

'에너지 다이어트' 앱으로 만나요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돕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에너지 다이어트'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가정의 에너지 비만도 측정 △가전기기 등의 에너지 절감 방법 안내 △10대 에너지 절약 노하우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가정의 에너지 비만도 측정은 가족 구성원의 거주 형태와 거주 인원 등을 감안해 가구별 적정 에너지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간 비교를 통해 가구별 에너지 비만도를 측정해준다.
가전기기 등의 에너지 절감 방법 안내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에어컨, 냉장고, TV, 컴퓨터, 세탁기, 냉온수기 등 6가지 가전제품과 승용차의 에너지 절약 방법과 생활비 절감액을 직접 계산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 용어사전' 애플리케이션도 배포된다. 지식경제 용어사전은 산업, 무역, 에너지 등 실물경제 분야의 2천5백 개 최신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쓴 사전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콘텐츠 범위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안드로이드, 윈도 모바일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아껴쓰고
뽑아두고
살펴사고

녹색소비, 참~ 쉽죠!

일단 구입한 제품은 아껴 쓰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코드는 뽑아두고, 제품을 구입할 때는 환경마크를 살피는 녹색소비를 실천함으로써 지구를 구할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자발적 불편은 뿌듯한 정신적 에너지가 된다.

도시에서 마당이나 옥상, 베란다 등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가꾸는 것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적극적인 녹색소비 활동이다.



조영철 기자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친환경적으로 살림을 하는 주부를 '에코맘'이라고 한다. 알뜰한 살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제품 구입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절전형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협에서 활동하며 녹색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최재숙(49·서울 종로구 청운동) 씨는 '에코맘'이다. 화장지와 같은 생활용품을 살 때도 친환경 마크가 붙은 제품인지 살피고, 가전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꼭 확인한다. 식품은 제철식품을 구입하고 수입식품은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대형마트에는 아예 가지 않는다. '원플러스원'이나 묶음판매가 싼 것처럼 여겨져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 씨는 "싸다고 아무 물건이나 구매해서 환경이 파괴되면 세금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된다"며 녹색소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절약도 녹색소비의 중요한 부분이다. 녹색소비를 위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따져야 하고 사용할 때는 대기전력을 줄여야 한다.

전자레인지의 플러그를 꽂아둬서 새나가는 대기전력은 가구당 연간 24킬로와트시로 이는 실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소비되는 전력의 30퍼센트를 넘는다. 그만큼 대기전력은 큰 에너지 낭비 요인이다.

환경마크·우수재활용인증마크 확인하세요

최 씨는 가전제품마다 개별 차단기가 붙어 있는 멀티탭을 사용해 대기전력을 줄임으로써 전기요금을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었다. 집 안의 전구도 환경마크가 붙은 삼파장 전구로 모두 교체했다. 덕분에 세 식구가 사는 최 씨네 전기료는 월 2만원 정도 나온다.

최 씨가 실천하는 가장 적극적인 녹색소비는 텃밭을 가꾸는 것이다. 마당에 수십 개의 화분을 놓고 상추, 치커리, 열무, 방울토마토, 고추, 호박, 가지 등을 심었다. 여름에는 따로 장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다. 최 씨는 "채소를 가꾸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내 손으로 생산하고 나아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녹색소비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소비를 말한다. 이제 소비를 할 때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소비는 기본적으로 편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소비를 하면서

“ 우리 국민들은 쓰레기 종량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착시켰다. 녹색소비 또한 이처럼 조그만 정성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젠 소비를 할 때도 환경을 우선시해야 하는 시대다. ”



동아DB

아껴 쓰고 재활용하는 녹색소비는 지구도 살리고 이웃도 도울 수 있다. 서울 마포구와 '행복한 미래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증받은 관내 학교 교복을 지역 실직여성들에게 수선토록 한 뒤 무료로 다시 나눠주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자면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환경부가 실시한 '녹색소비·녹색제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도 90.3퍼센트의 소비자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81.9퍼센트가 친환경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37.9퍼센트만이 녹색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평범하고 게으른 소비자가 '에코맘'을 따라잡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 먼저 제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 인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친환경 인증의 대표적인 것이 환경마크다. 환경마크는 같은 용도의 제품 중에서 생산, 유통, 사용, 폐기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표시한다. 올해 5월 말까지 생활용품, 가전제품, 사무용 기기, 건설용 자재 등 1백43개 제품군에서 1천8백81개 업체, 7천4백36개 제품이 인증돼 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원료 채취,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 소모되는 자원과 환경부하를 계산해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가 공인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장점이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수치를 비교 판단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환산해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이다. 올해 6월까지 49개 업체 2백2개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우수재활용인증마크는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올해 5월 말까지 폐지, 폐유리 등 14개 분야에서 1백65개 업체, 2백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조명기기, 충전기 등을 고를 때는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살펴야 한다. 같은 종류라도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에 비해 30~40퍼센트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제철식품과 친환경 농산물 구입이 녹색생활 지름길

또 에너지절약마크가 있는 제품을 고르면 일반제품보다 에너지를 30~50퍼센트 절약할 수 있다. 대기전력 저감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고,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 제품에는 경고 표시를 하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린터, TV, 유·무선 전화기, 비데 등 사무기기와 가전기기 20개 제품, 7천 개 모델이 등록돼 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나 전기절감 제품을 구입하면 탄소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제품을 구입할 때 OK캐시백카드를 내면 탄소캐시백 포인트가 합산돼 OK캐시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산품뿐 아니라 먹을거리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이용하면 된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말한다. 농약 사용 정도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인증마크가 붙는다. 이런 인증마크가 붙은 제품은 생협 등 친환경 매장뿐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찾을 수 있다.

> **녹색소비는 녹색성장을 이루는 필수 요소다. 녹색소비는 거창한 게 아니다. 일단 구입한 제품은 아껴 쓰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코드는 뽑아두고, 제품을 구입할 때는 환경마크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

채소 등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철식품을 구입하면 농약을 덜 친, 싸고 싱싱한 것을 먹을 수 있다. 또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것을 고르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이동에 에너지를 덜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친환경상품 종합정보망'과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 환경마크 등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절전형 사무·가전기기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 친환경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녹색조달 시장은 2004년 2천5백49억원에서 2008년 1조5천8백4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2008년 정부의 녹색소비로 62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고, 1백3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했다.

정부는 또 녹색소비를 산업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대중공업, 포스코건설, CJ제일제당 등 국내 대표적 기업 23개와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친환경 원부자재 등 산업계의 녹색구매 금액은 2조3천억원에 달한다.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다면 '녹색가계부'를 적어보자. 녹색가계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요금, 쓰레기 사용량 등을 기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도 않은데 싸다고 구입한 물건은 없는지, 환경을 파괴하는 상품은 아닌지 녹색소비의 관점

녹색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녹색제품 인증마크

환경마크	우수재활용제품마크	탄소성적표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절약마크	대기전력경고표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환경부

정부는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 유통업체, 산업계 등과 힘을 모으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미스코리아 모임인 녹우회 회원 등이 '2010 녹색소비주간' 행사의 하나인 친환경 상품 기획전에 참가했다.

에서 돈의 흐름을 진단하는 것이다.

녹색가계부 쓰기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절감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인트를 부여해 현금,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5월까지 1백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탄소포인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서면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녹색소비는 녹색성장 이루는 필수 요소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팀 이남일 과장은 "1백만 가구가 월평균 35킬로와트의 전기를 절약하면 국가적으로 연간 17만8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소나무 3천5백61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해 올해 말까지 2백만 가구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소비는 녹색성장을 이루는 필수 요소다. 아무리 국가에서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도 소비자가 참여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녹색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한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국민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6퍼센트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녹색소비는 거창한 게 아니다. 일단 구입한 제품은 아껴 쓰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코드는 뽑아두고, 제품을 구입할 때는 환경마크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금한승 과장은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서 친환경 형광등 1개씩만 구매해서 교체해도 연간 약 60톤의 이산화탄소와 1백6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3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 온 국민이 녹색소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친환경 상품 종합정보망 www.ecoi.go.kr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www.greenproduct.go.kr
탄소포인트 www.cpoint.or.kr

"빌려쓰는 지구 깨끗하게 돌려주고 싶어요"

엣지있는 녹색생활 실천 연예계 스타들

환경화보 촬영에 참여해 수익금을 저개발국가로 기부하는 등 국내 유명 스타들의 지구사랑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 스타들도 '탄소발자국'을 덜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패션그룹형지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자이언트〉에 출연 중인 박진희 씨는 월드컵 때 입었던 티셔츠를 저개발국 이웃들에게 기증하는 캠페인에 참여하자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제3세계에) 월드컵 티셔츠 보내기 운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에코 응원하고 기부도 하고!"

배우 박진희 씨가 지난 6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2010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 때 입었던 붉은 티셔츠를 나눔 단체를 통해 아프리카 이웃들에게 보내자는 이른바 '붉은 티셔츠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하자고 자신의 '트친(트위터 친구)' 1만4천7백93명에게 알린 것이다.

트위터에서 에코 지니(eco_jini)라는 아이디를 사용할 만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박 씨의 글은 또 다른 트친들에게 전파됐다.

월드컵 기간 동안만 입고 버려지는 티셔츠를 모아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보내자는 소박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캠페인에는 박 씨 같은 연예인뿐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회사에서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캠페인 주관 단체 포유앤포미와 아름다운 가게에는 6월 말 현재 약 10만 장의 티셔츠가 기부됐으며, 해외 운송에 필요한 비용모금 운동, 홍보 스티커와 홍보 영상 무료배포 운동, 기부 인증샷 올리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붉은 티셔츠 기부 독려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만큼 박진희 씨는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친환경 전도사다. 얼마 전에도 트위터에 "임들이 동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네요. 환경은 빠르게 오염되고, 우리의 실천은 느려서요"라며 환경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배우 박진희 "월드컵 응원 티셔츠 제3세계 기부해요"

박 씨는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을 지난해에 찾아 자원봉사자로서 기름때를 씻어냈고, 지난해 MBC 스페셜 〈북극곰을 위한 일주일〉에서 문명의 혜택 없이 일주일을 버티는 역할을 맡는 등 환경 지킴이로 맹활약하고 있다.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매년 봄 열리는 서울환경영화제(Green Film Festival)에서는 올해까지 4년 연속 홍보대사인 '에코 프렌즈'를 자임했다.

이뿐 아니다. 박 씨가 지난 4월 미니홈피를 개설한 것도 "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어서"다.

그의 미니홈피 게시판에는 사소한 듯 보이지만 환경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생활 속 실천 사례들이 올라 있다. 플라스틱 병 대신 텀블러(굽과 손잡이가 없고 바닥이 납작한 큰 잔) 사용하기, 포크와 수저 챙겨 갖고 다니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휴지보다 손수건 쓰기 등 그동안의 친환경 생활 노하우가 소개돼 있다. 그는 왜 친환경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유엔한국위원회



최근 '세계 환경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최강희 씨는 개인 컵을 갖고 다니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인다.

> "엄마는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유난히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나 초록에 녹아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다 점점 빠르게 사라지는 초록을 못 보게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제가 왜 지구사랑에 관심이 많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따져 보면 엄마 영향(인 듯해요). 엄마는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유난히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나 초록에 녹아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나도 모르게 배웠나 봐요.

저도 공원 풀밭에 누워 있는 게 좋고, 산을 보는 게 좋고, 나무 곁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다 점점 빠르게 사라지는 초록을 못 보게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온 지구를 좀 더 깨끗하고 괜찮은 지구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한편 배우 최강희 씨는 지난 6월 초 '2010 세계 환경의 날' 한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세계 환경의 날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개발을 위한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유

넵)이 매년 6월 5일로 정해 기념하는 날이다.

UNEP은 1972년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유엔 산하에 설립된 환경 전문기구. 올해는 UNEP이 선포한 '세계 생물 다양성의 해'로, 최 씨는 이를 상징하는 티셔츠를 입고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일에 나섰다.

최 씨가 세계 환경의 날 홍보대사로 임명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유넵한국위원회가 'Kick the Habit! 습관을 바꿔요, 지구를 위해!'를 주제로 벌인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관련 환경화보 촬영에 참여해 수익금을 파키스탄 친환경 진흙정수기 보급 사업에 기부하기도 했다. 최 씨는 유넵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지구에게 보내는 사랑의 보답'이라는 글을 올려 환경 사랑을 표현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 저는 그로 인해 사라져 가는 나무를 생각하며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음료를 마실 때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휴지의 사용을 줄이고자 어린 시절에 늘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을 다시 휴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운동량이 많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즐거운 친환경 활동이라 생각해 꾸준히 합니다."

이처럼 최 씨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은 쉽고도 간단하다. 최 씨는 "습관을 조금씩만 바꾸면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구를 사랑하는 일은 내가 태어난 곳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자연스럽고 의무적인 사랑의 보답"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요즘 자신의 미니홈피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바이코레



<현주의 손으로 짓는 이야기>(살림)



조영철 기자

자전거 마니아 전소민 씨는 중고 자전거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행사에 참여했다(왼쪽). 김현주 씨는 '에코백'을 직접 디자인해 수익금을 기부했다(오른쪽 위). 개그 듀오 컬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친환경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오른쪽 아래).

1996년에 데뷔한 중견 배우 김현주 씨는 손수 만든 '에코백'에 쇼핑한 물건들을 담는다. 김 씨가 바느질 솜씨를 능숙하게 발휘한 에코백들은 때로는 장바구니가 됐다가 때로는 여행 가방이 된다. "나만의 가치를 표현한 가방이야말로 진정한 명품 가방"이라는 게 김 씨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간한 〈현주의 손으로 짓는 이야기〉(살림 펴냄) 인세의 1퍼센트와 지난 2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패션잡화 브랜드 르스타일 에코백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긴급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기도 했다.

드라마 〈에덴의 동쪽〉 〈산너머 남촌에는〉 등에 출연한 배우 전소민 씨는 평소 자전거를 타고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과 서울 한강시민공원을 자주 찾는다. 전 씨는 예전에 타던 중고 자전거를 수리한 후 자선단체에 기증하는 '리사이클 유어 바이시클(자전거 브랜드 바이코레 주최)'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개그 듀오 컬투 "음식 안 남기는 게 환경보호죠"

현재 국내 라디오 프로그램 중 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두 시 탈출 컬투쇼〉(SBS)의 진행자인 인기 개그 듀오 '컬투'의 정찬우, 김태균 씨는 소문난 녹색생활 실천가들이다. 김태균 씨는 집 베란다 화단에서 고추, 토마토 등을 친환경 농법으로 키우며 다섯 살배기 아들에게 자연사랑을 자연스럽게 가르친다.

정찬우 씨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절전 멀티 탭을 쓰고, 잠들기 전에 안 쓰는 전기 플러그를 뽑는 게 습관이 됐다. 정 씨는 "남자가 좀스럽다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집사람에게 늘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다"면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은 농사짓는 분들의 수고에 보답하는 일이자 환경보호운동이라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그맨 송은이 씨의 에코 라이프도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송 씨는 타고 다니는 차량과 자주 가는 사무실, 방송국 스튜디오 등에 컵을 갖다놓고, 귀찮아도 수저통을 꼭 들고 다닌다. 연예인들은 이동과 대기시간이 길어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환경부가 환경 홍보대사로 위촉한 영화감독 임권택 씨, 배우 조재현 씨, 배우 이세창 씨, 만화가 겸 덕성여대 교수 이원복 씨, 아나운서 오영실 씨 등이 국립공원 환경보전, 친환경 운전 등 각 분야에서 지구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G

글·최은숙 기자

월드컵 티셔츠 기증 '포유앤포미' www.foryounforme.com

할리우드 스타들도 '녹색생활'


소니비엠지 / 로이터 / 동아DB

할리우드의 에코 라이프 실천가들(왼쪽부터).
싱어송라이터 저스틴 팀버레이크,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과 캐머런 디아즈.

캐머런 디아즈와 제니퍼 애니스턴의 공통점은? 할리우드에서 최고 몸값을 받는 이들 유명 스타는 모두 녹색생활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다. 이들을 포함한 할리우드 스타 12인은 '이기적인 소비자로 남아 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이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지난해 〈그린북〉이라는 책을 펴냈다.

최근 톱스타 톰 크루즈와 호흡을 맞춘 액션 블록버스터 〈나잇&데이〉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디아즈는 어릴 적 같이 살던 할머니에게서 친환경 습관을 물려받았다. 디아즈는 〈그린북〉의 머리말에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더듬는다.

"저는 할머니가 은박지와 비닐봉지를 재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빵을 다 드시고 난 후에는 비닐봉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셨어요. 또 고기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지방으로는 비누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재사용되고 재활용되었습니다."

디아즈는 그러한 할머니의 삶이 "땅에서 얻은 것을 땅으로 돌려주는 친환경적인 삶"이었다고 회고한다.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레이첼 그린 역으로 친숙한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은 샤워할 때 물 절약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다. 샤워는 3분도 길다. 그는 "2분 동안 샤워할 때 쓰는 물의 양이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이 세탁하고 씻고 요리하는 등 하루 종일 쓰는 모든 물의 양과 같다는 걸 알고 난 후부터 샤워 시간을 더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토크쇼 진행자 엘렌 드제너러스는 사람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걸 보고 화를 낸다. 그는 생수를 사마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재활용 쓰레기통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엌 개수대에서는 폐식용유 한 방울도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매년 북미 해양에 유입되는 1억1천만 리터의 기름 중 90퍼센트가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다.

팝그룹 엔싱크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아프리카 여행 중 환경문제에 눈을 떴다. 환경문제를 노래로 호소하는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 그는 공연을 다닐 때마다 얼마나 많은 '탄소발자국'을 남기는지 예전보다 훨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6월 30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페트병 작품 전시회에 선보인 페트병 지구본. 초경량 페트병 1천 개로 만들었다. 동아DB

기업에 부는 '녹색 바람'

녹색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저탄소 녹색생활'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녹색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의 저탄소 경영에 비상이 걸린 데다 소비자들도 환경을 중요시하는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복합쇼핑문화공간 가든파이브의 옥상 정원인 '포시즌파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꼽힌다. 자연녹지로 조성된 포시즌파크의 면적은 무려 축구장 3개 크기(2만5천 제곱미터)다. 하늘 위에 자리 잡은 드넓은 포시즌파크는 에코, 웰빙, 시네마, 페스티벌 등 4개 테마로 구성됐으며 특히 에코 가든에는 야생화 정원, 산책로, 연못 등이 조성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회색 시멘트와 둔탁한 물탱크가 독차지하고 있던 건물 옥상이 이처럼 풀과 꽃이 자라는 정원이나 채소를 기르고 과일이 열리는 미니가든으로 변모하고 있다. 녹색 옷을 갈아입은 옥상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도심 직장인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에너지총량제 도입… 저탄소 경영 과제 대두

건물 옥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1백 제곱미터당 매년 20킬로그램의 오염물질 감소효과가 있다. 또 옥상에 흙을 10센티미터 두께로 덮어주면 소음이 20데시벨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또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옥상 공원 사업을 추진해온 서울시는 2009년 말까지 3백39곳에 낙산공원(종로구 동숭동)과 비슷한 크기(15만1천6백72제곱미터)의 옥상을 공원으로 조성했다.

옥상 정원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빌딩화'의 한 방안이다. 녹색빌딩화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올 4월부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건물과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소비 총량제'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녹색빌딩화는 '경관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 녹색빌딩화를 비롯한 저탄소 친환경 경영이 기업들의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에너지경영시스템 시범 운영… 녹색경영 지원

이와 같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기업의 녹색경영 바람이 불고 있다. 생활용품업체인 애경은 지난 5월 기존 액체세제 대비 사용량을 반으로 줄인 친환경 세제 '리큐'를 출시하며 '스마트그린 경영'을 선포하고 향후 5년 동안 친환경 제품 수익금 중 일부를 떼어 총 10억원의 환경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친환경사무국'을 두고 있는 애경은 제품 원료의 채취에서부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하고 '탄소성적표지'를 전 제품에 확대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기업이 되고 있다.

한국코카콜라는 6월 30일 초경량 페트병을 앞세운 '휘오 순수'를 출시하며 사단법인 아시아인재과학원의 '그린 피스코'와 공동으로 친환경 페트병 작품전시회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센터에서 개최했다. '휘오 순수'는 한국코카콜라의 기존 먹는 샘물 '순수100'의 페트병(5백 밀리리터) 무게를 18그램에서 14그램으로 줄인 것으로 동급 대비 국내 최경량 페트병이다.

포스코와 LG 등도 그룹 차원에서 녹색경영을 선언했다. 포스코는 '그린 스틸' '그린 비즈니스' '그린 라이프'로 친환경 분위기를 주도하고, LG는 그린 사업장 조성과 그린 신제품 확대 등 그룹 전체의 녹색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로 저탄소 경영에 앞장서기도 한다. 두산은 풍력발전, 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효성은 신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저감 제품,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 **기업들의 친환경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에너지경영시스템(EMS)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실제 이러한 기법을 도입한 듀폰사나 3M의 경우 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에너지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덴마크, 영국 등 8개국이 EMS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친환경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에너지경영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EMS란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기업의 정책, 목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적합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공인된 제3자가 판정해주는 시스템 인증제도다.

실제 이러한 기법을 도입한 듀폰사나 3M의 경우 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에너지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덴마크, 영국 등 8개국이 EMS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팀 수요관리실의 EMS담당 박상구 씨는 "그동안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했고 이 중 5개 사업장이 시스템 적합성에 대해 EMS 인증을 받았다"며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EMS를 IS경영시스템 등 기존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와 차별화해 더욱 실효성이 있는 인증제도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사의 옥상 정원.
직원들의 쉼터이자 냉난방 에너지도 절감시켜주는 '효자 시설'이다.

동아DB





그린홈 플러스에는 건물 때문에 생긴 집 주변의 미세한 기후변화를 조절하는 외부환경 조성 기술이 적용됐다.

에너지 100% 절감 친환경 공동주택이 떴다

국내 최초의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모델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선보인 '그린홈 플러스'는 70여 가지의 저에너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최대 1백 퍼센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가전제품은 지붕과 벽의 태양전지판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하고 목욕물은 태양열로 데운다. 냉난방은 벽 안에 모세혈관처럼 흐르는 복사 냉난방 시스템이 냉·온수를 순환시켜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처럼 기존 주택에 비해 에너지를 1백 퍼센트까지 줄인 꿈의 주택이 현실화된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모델로 공개한 그린홈 플러스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해 산학연 합동으로 추진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사업의 하나로,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에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기술을 적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린홈 플러스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부환경 조성 기술, 저에너지 건물 기술, 고효율 설비 기술 등 3개 분야에서 70여 가지의 최신 기술 및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했다. 이러한 기술을 단지 특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률이 각각 40, 60, 80, 1백 퍼센트인 4개 모델을 제시했다.

외부환경 조성 기술은 건물로 인해 주변과 다르게 나타나는 온도, 습도, 풍향 등을 조절하고 열섬현상 등을 줄이는 기술로 경사형 및 벽면 녹화(綠化) 시스템, 물 순환 시스템, 친환경 통합 단지계획 등을 적용했다.

70여 가지 친환경 기술 적용 4개 모델 제시

저에너지 건물 기술은 건축물 단열, 틈막이 설계 및 시공, 자연형 냉난방 기법으로 가변형 경량벽체 시스템, 외단열·열차단 시스템, 지능형 이중창호 시스템, 친환경·기능성 실내 마감재 등을 사용했다.

또 고효율 설비 기술은 효율적 에너지 설비 및 조명 제어 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기술로서 모세관 복사 냉난방 시스템, 하이브리드 환기 시스템, 태양열 급탕, 태양광발전 시스템, 지열+우수 열원 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벽체와 창호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지열과 우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1백 퍼센트 에너지 절감 모델인 '그린홈 플러스 100'에는 벽면과 지붕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이탁 과장은 "앞으로 그린홈 플러스 건축 모델을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도입해 에너지 절감률을 높이는 한편, 한국형 제로에너지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플러스를 주택 분야 친환경 기술 연구 공간으로 활용해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홍보의 장소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옥상에는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녹화유니트를 통합 설치해 에너지 생산과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미래 한국은 '에너지 자립국'

에너지 자주 개발 위해 해외서 뛰는 기업들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건 세계 각국의 치열한 에너지 전쟁에서 생존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언제까지 수입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해외자원 자주 개발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동아DB

에너지 자주 개발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베트남 유전 개발 현장.

정부는 올해를 주요 에너지원 자립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원년'으로 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열린 정부석유비축기지 준공 기념행사에서 "2007년 말 4.2퍼센트였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자주 개발률을 연말까지 10퍼센트로 높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특히 민간 기업에 많은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73퍼센트에 그쳤던 해외자원 개발 융자 예산의 민간지원 비중을 올해 85퍼센트까지 높였다.

국책은행의 해외자원 개발 금융 지원과 '매장량 담보'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 자원개발 기업을 위해 지식경제부 주도로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유망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분석 가공해 각 기업에 전파하는 '해외자원 개발 정보제공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한 공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및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석유공사(1백억원), 광물공사(1백억원), 산업은행(5천1백50억원) 등이 참여한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했고, 앞으로 공기업 출자를 추가할 예정이다.

"석유·천연가스 등 자주 개발률 10%로 올릴 것"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간 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월 방글라데시 육상 탐사 광구인 '블록 7' 지분을 매입키로 했다. 이로써 GS칼텍스는 캄보디아, 러시아, 태국,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에 이어 6번째로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 광구는 다수의 가스전이 발견된 지역에 인접해 있어 또 다른 추가 대형 가스전 확보가 기대된다.

삼성물산도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국 내 석유 탐사사업을 추진하고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리튬,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책은행의 해외자원 개발 금융 지원과 '매장량 담보'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 자원개발 기업을 위해 지식경제부 주도로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유망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분석 가공해 각 기업에 전파하는 '해외자원 개발 정보제공 시스템' 도 구축된다.

이미 브라질, 베트남 등 16개국 30여 개 광구의 지분을 사들여 하루 4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가능한 라인을 확보한 SK에너지는 지난 6월 11일 페루에 연간 4백40만 톤 생산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공장을 완공했다. 이곳에서는 이미 SK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56광구와 88광구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액화해 LNG를 생산한다. 4백40만 톤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LNG 소비량 2천5백만 톤의 6분의 1에 달한다.

SK에너지는 6월 8일 아예 석유개발 사업 등을 남기고 핵심 사업을 모두 분사(내년 1월 1일 목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美 SEI사 인수 등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방향 제시

중견기업들도 해외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에이티넘파트너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1천9백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생산 광구를 보유한 미국의 SEI사를 인수했다.

이 소식은 지식경제부가 직접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로 '빅뉴스'였다. SEI사 인수는 민간 기업에 의한 미국 내 석유개발 기업 인수의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사는 가스전은 물론이고 수평정 시추, 해상 플랫폼 운영 및 생산 등 미국 육·해상 유전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다. 이는 사실상 우리 민간 기업 해외자원 개발 투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해외유전 개발 전문기업인 골든오일은 콜롬비아 머리치토 광구를 비롯해 캐나다, 페루, 아르헨티나 등의 총 28개 광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주)KIC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바군바얀 지역의 금광 채굴권을 확보하고 지난해 말부터 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코리아 컨소시엄'도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G

글 · 유재영 기자

세계 속의 '에너지 한국'… 에너지 '국가대표'는 원자력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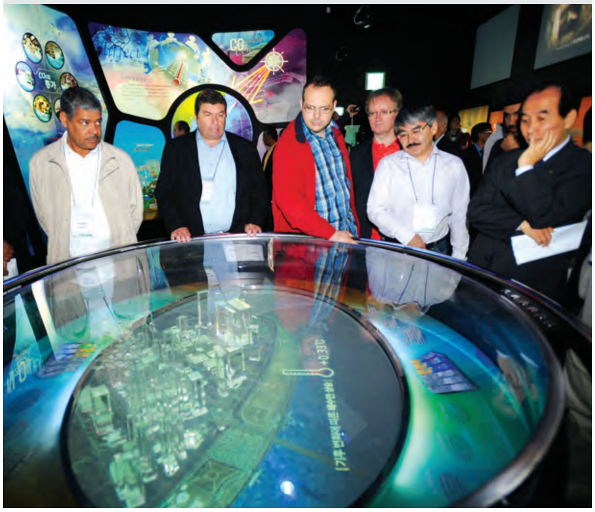
에너지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원자력이다.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또한 발전과 사용 단계에서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세계 5위 석유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시설을 선택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들로서는 석유 고갈과 세계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우리나라도 1978년 4월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시설용량 5백87메가와트로 운전을 개시한 이래 월성, 고리, 영광 등에 현재 20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시설용량은 1만7천7백16메가와트로 30여 년 사이 30배가 늘었다. 시설용량으로는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이다. 발전소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인 원자력발전 설비 이용률도 지난해 91.7퍼센트(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 운영실태 현황 참조)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는 세계 원자력발전 평균 이용률인 79.4퍼센트(2008년 기준)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원전이용률 10퍼센트 차이는 1천 메가와트급 표준형 원자력발전 2기가 약 1년간 생산하는 전력에 해당한다. 특히 고리 원자력발전 4호기는 전 세계 4백여 원전 중에서 이용률 세계 1위를 7번이나 차지했다. 고장정지도 호기당 0.35건에 불과하다.

발전량도 1천4백78억 킬로와트로 국내 총발전량의 3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59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명실상부한 국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에너지 강국의 미래는 원자력과 함께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시행한 '원전 도입국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하나인 '신규원전 건설관리 워크숍'에 참가한 태국, 터키,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 희망국 22개국 원자력 관계자와 IAEA 전문가 등 40여 명이 지난 5월 13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동아DB

태양·물·바람 이용한 '신재생에너지'가 대안

화석연료 시대 이후를 대비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주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소리 없는' 에너지 전쟁에 가세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진 기술을 유치하고 독자 원천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아DB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초저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업체 수 3.6배, 고용인원 13.3배, 매출액 29배, 수출액 31.4배 증가.'

지식경제부가 지난 4월 7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1백50개 업체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2003년과 2009년의 비교 수치다.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성장세가 무척 가파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향후 '자주적 자원 확보' 및 '국가 성장동력 기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체 투자 규모 대비 연구개발 지원 비중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집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부 예산액 추이에 따르면 연구개발 예산은 2003년 3백70억원에서 지난해 2천1백9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3백여 억원 이상 늘어난 2천5백28억원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주적 자원 확보·국가 성장동력 기반으로 각광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는 것과 태양광, 물, 바람처럼 계속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합친 개념이다. 이 중에서 특히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력과 풍력이다. 두 에너지는 매출액, 고용인원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이 무려 99.6퍼센트에 이를 정도다. 정부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분야인 셈이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0 추진 중·장기 핵심 에너지 기술 개발 과제(총 41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분야로 선정된 11개 과제 중 5개가 태양력과 풍력 기술이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반도체 기술 원리를 이용해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초저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핵심 과제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고가의 웨이퍼(반도체 소자 제조 재료) 사용으로 효율성이 높은 장점을



정경택 기자

풍력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그 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전경.

갖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제조원가를 40~50퍼센트 낮추고, 17퍼센트 수준에 머무른 기존 기술의 효율을 21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태양전지 기술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총개발기간은 3년으로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단계 개발 단계에 돌입한다.

민간업체들의 투자도 활발하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1월 울산에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연간 30메가와트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석유화학 분야의 나노전자잉크 기법을 활용해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풍력·목재 펠릿 연구 및 개발 박차

삼성은 아예 지난 5월 태양전지를 '미래 신성장 5대 신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2020년까지 10년간 총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은 18퍼센트대 효율을 보이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출시하고, 19퍼센트대 효율을 갖춘 독특한 하이브리드(결정질 실리콘과 비정질 실리콘이 합쳐진) 태양전지를 내놓기도 했다.

풍력에너지 분야도 정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까지 2.25기가와트의 전력을 보급하기 위해 3~5년간 매년 1백억원 이상을 시설 및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해상풍력발전사업 가능성이 높다.

벌써 인천 무의, 부산 다대포, 전남 신안, 충남 태안과 제주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앞다퉈 풍력단지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 효성, 유니슨 등의 기업에서도 1.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3메가와트급 발전기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연료를 변환해 쓰는 신재생에너지로는 목재 펠릿이 각광받고 있다. 목재 펠릿은 다른 목질계 연료보다 친환경성, 가격, 사용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로 가격은 경유의 절반, 보일러 등유의 82퍼센트 수준이다. 발열량은 무연탄에 버금간다."

기존 연료를 변환해 쓰는 신재생에너지로는 목재 펠릿이 각광받고 있다. 목재 펠릿은 다른 목질계 연료보다 친환경성, 가격, 사용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로 가격은 경유의 절반, 보일러 등유의 82퍼센트 수준이다. 발열량은 무연탄에 버금간다.

최근엔 앞으로 늘어나는 펠릿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저등급 임산폐기물에서도 펠릿을 생산하는 고유의 기술을 조기에 국산화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 산림청은 지난 4월 한국우드펠릿과 '고열량 탄화펠릿 생산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술은 부실한 목재라 할지라도 부분탄화를 일으켜, 여기서 얻어진 탄화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것. 일반 펠릿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열량이 높고 흡습성이 낮아 수송, 보관, 포장이 용이하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개발 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5년까지 추가로 2조원을 투입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품, 소재, 장비 개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전략 방안'을 7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으로 올려 발표할 예정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분뇨도 폐기물도 모두 에너지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절약 노하우

세계는 지금 그린(Green) 열풍에 휩싸였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는 고갈되는 상황에서 모두 함께 사는 길은 '환경 살리기'의 또 다른 이름, '에너지 절약'뿐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알아봤다.


동아DB

일본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금속 폐기물을 하나의 '광산'으로 여기고 재활용하고 있다.

가축 배설물 활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덴마크는 인구 1인당 5마리에 해당하는 2천5백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대표적인 양돈 선진국이다. 그러나 수천억 톤에 달하는 분뇨 처리 문제가 발생하자 덴마크 정부와 기업은 가축 배설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몰두했다. 끊임없는 연구 끝에 분뇨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냈고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됐다.

남은 찌꺼기는 정화해 배출하거나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 곡식 수확이 끝나고 남은 밀짚, 도축장 폐기물 등 온갖 쓰레기는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각로로 보내져 지역난방 에너지로 활용한다. 쓰레기를 소각할 땐 이산화황,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을 철저히 필터로 걸러내 환경오염의 위험이 없다.

덴마크는 롤란드섬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도시들을 통해 필요한 전력을 1백 퍼센트 생산해낸다. 최근에는 롤란드섬에 위치한 작은 마을 베스텐스코브에 '수소연료전지도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수소연료전지에 저장된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잉여 전력을 1년 동안 주택의 전력과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유럽 최초의 수소연료전지마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에너지 절약하고 삶의 질 높여

프랑스 파리는 '자전거 천국'으로 불린다. 2007년 7월 도입한 '벨리브(Velib)' 덕분이다. 벨리브는 24시간 무인 공영 자전거 시스템으로, 프랑스어 '자전거(Velo)'와 '자유(Liberte)'의 합성어다. 3백 미터 거리마다 들어선 벨리브 자전거 주차장에 20대 정도의 자전거를 비치해두고 하루 1.6

유로 정도만 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008년 프랑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만4백명의 고용 증대, 교통혼잡 비용 1억2천만 유로 감소, 3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 등 도입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교통정책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벨리브 외에도 새로운 교통정책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40년 만에 부활한 트램(지상전차)이다.

현재 하루에 승객 11만명을 실어나르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2012년 미개통 구간 총 22.4킬로미터를 완성하면 하루 이용자 수가 27만5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무인 자동차 대여 시스템인 오토리브(Autolib)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대신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를 무인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5백50~6백 대의 자동차를 배치해 운영한 뒤 차츰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동아DB

프랑스 파리는 2007년 무인 공영 자전거 시스템 '벨리브' 등 친환경 교통정책을 펼쳐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파리 시민이 벨리브를 이용하는 모습.

폐가전제품 활용 통해 자원 부국 꿈 키운다

일본은 '도시 광산(Urban Mining)' 프로젝트로 에너지 절약과 녹색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도시 광산은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만든 용어로, 버려지거나 여기저기 방치됐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금속 폐기물을 하나의 광산으로 여기고 이를 재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일본 폐가전제품에 축적된 금 보유량은 6천8백 톤 정도로 추정된다. 지구에 파묻힌 4만2천 톤의 16퍼센트를 차지하는 양이다.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희귀금속 인듐도 전 세계 3분의 1이 일본의 도시 광산에 있다.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제품이 도시 광산의 절대적 품목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고가 귀금속과 희유금속(Rare Metal)이 집적돼 있는 고순도 초우량 광산에 해당한다. 휴대전화 약 1톤(1만 대)에서 나오는 금이 2백 그램으로, 1톤짜리 금광석에서 채굴되는 금이 평균 5그램이니 도시 광산이 천연 광산보다 채굴 효율이 높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본의 기타큐슈는 이런 도시 광산 개념의 밑바탕이 되는 '재활용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재활용 산업의 집적지이자 '에코타운'이라 불리는 이곳엔 현재 25개 기업이 폐형광등, 가전제품, 페트병, 건설폐기물 등을 재활용해 자원화하고 있다.

먼지, 재, 흙더미 등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도 고온으로 녹여 아스팔트 재료로 재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온도 낮추고 에너지 절약하는 녹색 지붕 프로젝트

전형적인 아열대 기후인 홍콩. 후텁지근한 날씨 탓에 에어컨 전력 소모가 크다. 에어컨과 자동차에서 내뿜는 열기와 밝은 조명 등으로 도시 열섬현상도 심각하다. 이에 고심하던 홍콩 정부는 '녹색 지붕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전문기술을 활용해 건물 지붕에 풀이나 나무를 심어 초목 지대를 조성한 것이다. 녹색 지붕이 생기면 실내온도가 최대 섭씨 6도 이상 내려가 에어컨 가동 시간을 5시간 정도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또한 녹지가 부족한 도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홍콩 정부는 첵랍콕공항 인근 시설과 건물에 녹색 지붕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정부 건물과 신설 공공주택단지, 쇼핑몰 등에 녹색 지붕을 만들어 에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자전거로 행복한 '녹색 대한민국'

1000억 투입…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꿈의 자전거 명품도시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도별 1개 시군과 행정구역 자율통합도시 1개 등 10개 시군을 자전거 거점도시로 키운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는 2012년까지 3년간 1천억원이 투자된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가 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 자전거 인프라, 안전, 문화 등 자전거 이용 기반이 종합적으로 갖춰진 자전거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 도시에는 2012년까지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1천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팀 최훈 과장은 "이 사업은 전국 각 도별 1개 시군에 걸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해 이들 도시를 시발점으로 전국에 자전거 문화와 인프라 확산을 도모하고, 우리나라가 자전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거점도시는 강원 강릉시,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등으로 전국에서 응모한 총 45개 도시 중 심사를 통해 각 도별 1개 도시와 최근 행정구역을 통합한 창원시를 행정구역 통합 지원 차원에서 추가해 선정했다(표 참조). 선정 기준은 지형과 인구, 자전거 이용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 여부, 자체 조성계획의 충실성과 독창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이다.

창원경륜공단



경남 창원시 자전거문화센터. 교육과 정비, 전시, 홍보 등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공간이다.

2007년부터 3년 연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지자체' 기관표창을 받은 강원 강릉시는 대표적인 녹색도시. 주거지역과 대중교통 거점(버스터미널, 기차역), 상업시설, 항구를 연결하는 도시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포대, 해안도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 점이 눈에 띈다.

전국 각 도별 1개 시군 선정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이 있는 전남 순천시는 생태도시로 하천(동천)이 도시를 관통하는 등 자전거 이용에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 또한 주거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구축, 자전거 시범마을 및 학교 지정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친환경 자전거 생태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이 주목받았다.

시화·반월공단이 위치한 경기 안산시는 근로자의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산업도시로 자전거도로의 단절, 포장 상태 등 기존 이용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 지역	주요 특징
강릉시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와 관광자원 연계
구미시	생태산업단지 지정. 주거지와 산업단지를 연계한 생활자전거 활성화롱
군산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새만금 방조제 자전거도로, Zone-30 운영
서귀포시	'올레'와 연계한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순천시	생태도시(순천만). 2013년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 주거·산업단지 연결
아산시	온양지구를 중심으로 한 간선 자전거도로망.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 구축
안산시	산업도시(반월, 시화공단).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시책(Triple-Win)
증평군	생생도시 지정(녹색성장위원회). 재래시장 연계 생활형 인프라 구축
진주시	교육도시. 시민 자전거보험 도입. 남강변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조성
창원시	행정구역 자율 통합도시. 국내 최대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운영



강원 강릉시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한국의 대표적 고갯길인 대관령을 자전거로 오르기 위해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전거 거점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학교, 기업, 지자체가 연계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Tripple-Win' 시책,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친화권역 도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적 언어 자전거지도 제작 등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꾀했다.

자전거 코스의 관광 상품화에 주력한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한 제주 올레길과 연계한 하이킹 코스 개발, 공공자전거 도입, 걸어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되돌아오는 'Walk and Bike' 개념 도입 등이 특징이다.

"세계적 자전거 명품도시로 만들 것"

경북 구미시는 8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국가산업단지와 주거지, 각 학교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확충 등 생활 밀착형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낙동강변을 따라 생태·문화관광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도농 간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산업단지(1단지) 내에 자전거 안전교육, 수리, 전시·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건립, 구미역 인근에 자전거 주차타워 건립, Green-Bike 시범공원(동락공원 내)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도 공공자전거 확산,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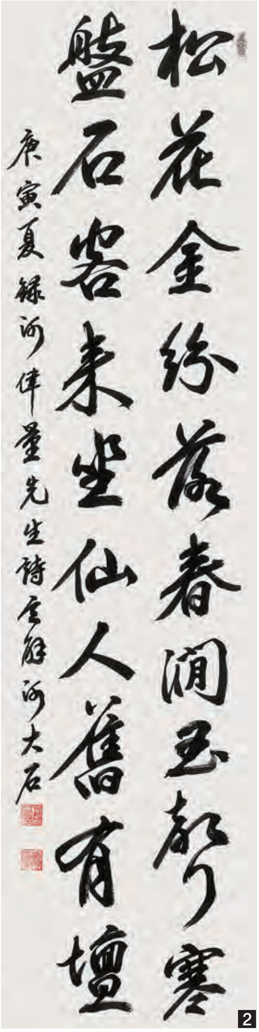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자전거 선진국인 영국, 일본 등에서도 적극 추진한, 실효성이 검증된 정책이다. 영국의 '자전거 시범도시 조성사업(Cycling Demonstration Towns Programme)'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통해 자전거 시범도시를 선정해 6개 타운을 지원한 정책. 그 결과 자전거 이용률이 3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08년 11개 타운과 1개 도시를 추가 선정해 2011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자전거 이용 수요 및 교통영향 분석,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한 세부 사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실제 주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광숙 객원기자



1


2

"그림 속에 희망을 담습니다"

2010 장애인 미술가 희망축제 한마당

붓질을 하고 크게 한 번 숨을 내쉰다.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그림에 따뜻한 입김이 서린다. 화가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와 평화롭고 정겹던 강원도 초가집을 떠올린다. 다시 갈 수 있을까. 화가는 긴 침묵 대신 입에 붓을 문다. 그리운 마음을 가득 담아 다시 붓질을 시작한다.

구족화가 송진현(43) 씨에게 '그림'은 삶의 희망이다.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그림을 그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순간에 벌어진 불의의 교통사고가 그의 인생을 뒤바꾸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사고로 당시 스물아홉 청년이었던 송 씨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어느 구족화가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입으로 희망을 그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삶의 소망을 담아 그린 그의 작품은 '2010 장애인 미술가 희망축제 한마당'에서 대상을 받았다.

2010 장애인 미술가 희망축제 한마당은 6월 30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본관에서 막을 열었다. 작품 시상식과 전시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미술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깊다. 서양화, 한국화, 서예, 공예 등 4가지 분야에 참여한 작가들은 총 1백9명으로, 이 중 각 분야별 우수상 1명과 대상을 선정했다.

장애인 미술작가 발굴 · 지원 위해 첫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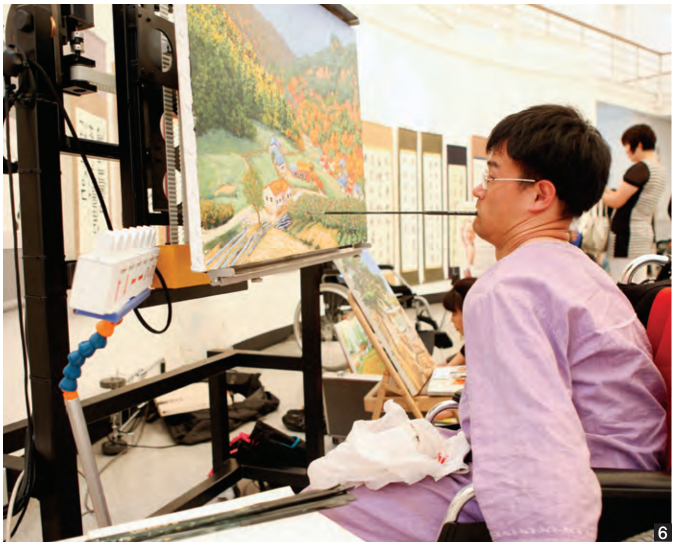
작품 시상식이 열린 7월 1일에는 구필 시연회와 족필 시연회를 열었다. 관객들은 불편한 몸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림 그리는 모습을 관람하며 장애인 미술가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3


4


5

조영철 기자


6

1 이번 행사에서 대상을 차지한 송진현 씨의 서양화 '그리움'.
2 서예 부문 우수상 하대석 씨의 '하위량 선생 시'.
3 한국화 부문 우수상 김계선 씨의 '천국의 열쇠'.
4 공예 부문 우수상 이선경 씨의 '희망의 빛'.
5 서양화 부문 우수상 김영빈 씨의 '희망 편지'.
6 작품 시상식이 열린 7월 1일 부대행사로 구족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시연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참여 작가의 작품을 모두 전시한다. 이미 7월 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본관에서 한 차례 전시를 마쳤으며,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제주성안미술관, 8월 20일부터 11월 31일까지는 서울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8월 10일부터 이틀간 가평청소년수련원에서 장애인 미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도 열린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이정현 국회의원은 "장애의 어려움을 예술로 승화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장애인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얻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장애인미술협회 Tel 02-2062-1571 ableart.net

조영철 기자


작품 시상식 날, 구족화가 송진현 씨(사진 오른쪽)가 이정현 국회의원으로부터 상패와 상금을 전달받고 있다.

동아DB



대표팀 감독직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온 김성근 SK 감독.

"맡고 싶다 하지만 쓴소리하는 나를…"

WBC 대표팀 감독 김성근 거부 이유

야구인에게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는 일은 더없는 영광이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붙은 유니폼을 입고 세계의 강적들과 맞붙는 일은 누구라도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장면. 그런데도 '野神(야구의 신)'은 그 영광스러운 국가대표 감독 자리를 왜 고사했을까.

2008년 한국 야구는 전인미답의 신기원을 이뤄냈다. 김경문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승의 신화를 작성하며 금메달을 따낸 것. 그는 올림픽 사상 가장 극적이자 뜻깊은 금메달이라는 칭송 속에 금의환향했다.

한편 올림픽에서 한국에 2연패하며 노메달 수모를 당한 일본은 '한국 타도'를 외치며 이듬해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일찌감치 요미우리의 하라 다쓰노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설욕을 노렸다.

그러자 한국도 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WBC 사령탑 선임이었다. 누가 지휘봉을 잡느냐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미 김경문 올림픽팀 감독은 WBC 대표팀 지휘봉을 잡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고사한 상황.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김 감독이 WBC까지 맡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KBO에 국제대회 사령탑 선임권이 넘어오면서 감독 선발 기준에 대한 큰 원칙이 세워졌다. 한국시리즈 우승팀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야 된다는 것. 그러나 두 번이나 그 원칙이 깨졌다.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감독 0순위는 선동열 삼성 감독이었으나 김재박 감독이 강한 의욕을 드러내면서 후배인 선 감독이 양보했다.

또 2007년 3월 베이징올림픽 예선을 앞두고도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한 선 감독이 다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아직 대표팀을 맡기엔 젊다"고 고사해 김경문 감독에게 지휘봉이 넘어갔다.

사실 금메달을 따낸 김경문 감독으로선 WBC까지 맡기에는 부담이 컸다. 스스로 "대표팀 때문에 소속팀인 두산을 돌볼 여력이 없다"고도 했다. 1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사령탑이 자리를 비우면 시즌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국시리즈 우승 감독=대표팀 감독?

김 감독이 이처럼 확고한 의사를 보이자 KBO는 한 발 물러서야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07, 2008년 한국시리즈를 2연패한 SK 김성근 감독이 후보가 돼야 했다. 그럼에도 KBO는 김성근 카드를 주저했다. 그러자 KBO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피어오르게 된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등 사령탑 선임 문제가 이슈화하자 윤동균 KBO 기술위원장이 2008년 11월 4일 김성근 감독을 만나 부임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성근 감독은 건강 문제로

고사했고, KBO는 곧바로 다음 날 김인식 한화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KBO가 김인식 감독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하일성 당시 KBO 사무총장이 김인식 감독에게 지휘봉을 잡아달라고 설득했고, 결국 김인식 감독이 이를 수용했다. 모양새는 KBO가 김성근 감독에게 먼저 감독직 수락을 요청했지만 김성근 감독이 고사하자 김인식 감독을 선임한 것이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김인식 감독 선임 발표일에 하 사무총장이 김성근 감독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이 자리에서 김성근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 부임을 다시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돌연 하 총장은 김성근 감독과의 만남을 취소하고 곧장 김인식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

통상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할 때는 소속팀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고사하더라도 재차 설득하는 과정이 따른다. 이에 대해 하 총장은 "김성근 감독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데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훼손될까봐" 뒷말 무성

또 하나의 의문은 김성근 감독이 왜 지휘봉을 덥석 받지 않았냐는 것이다. 재일교포 출신인 김성근 감독은 그간 대표팀 감독직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보여왔다. 야구계의 '비주류'로 한 번도 대표팀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든 것도 석연치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성근 감독이 WBC 대회에서 대표팀이 좋지 못한 성적을 내고 이에 따른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고사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김성근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 선임 직후 기자에게 속내를 밝힌 적이 있다. 그는 "KBO는 나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라도 낌새를 알 수 있었다. 당사자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 그래서 첫 만남(윤동균)에선 일단 고사를 했지만 재요청을 하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는 "진심"이라고 했다.

부임 요청 과정에서 김성근 감독에 대한 예우 논란도 불거졌다. 대개 기술위원장이 먼저 만나 운을 떼고 사무총장이 다시 만나 확정하는 게 순서. 그런데 사무총장은 만남을 철회했고, 곧바로 김인식 카드를 꺼내들었다. 원로 감독으로서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근 감독으로선 지휘봉을 맡더라도 대표팀 행정지원 주체인 KBO와 부딪칠 수 있다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때문에 감독직을 포기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었다.



동아DB

2008 베이징올림픽 대표팀을 이끈 김경문 감독(왼쪽)과
2009 WBC 감독 선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하일성 전 KBO 사무총장.

> **KBO는 나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 그래서 첫 만남(윤동균)에선 일단 고사를 했지만 재요청을 하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원래 KBO와 김성근 감독은 불편한 관계였다. 김성근 감독과 KBO는 끊임없이 충돌해왔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KBO의 준비 소홀과 원칙 없는 행정 등에 대해 자주 쓴소리를 해왔다. 이 때문에 KBO의 정책 집행을 지휘하는 하 총장으로서는 난감했을 수도 있다.

하 총장은 KBS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성근 감독과 친분을 나눴다. 사석에선 김성근 감독을 '형님'으로 불렀고 "내게 투수 이론을 가르쳐준 스승은 김성근 감독"이라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느 순간 소원해졌고 하 총장이 KBO 행정 수장이 되면서 정면으로 맞섰다.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졌다.

이제 한 해가 지난 시점, 김성근 감독은 여전히 KBO 행정에 원칙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감독 문제로 홍역을 치른 KBO는 다음 WBC에도 전년도 한국시리즈 우승팀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로 결정했다. 김성근 감독이 2012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할 경우, 3회 WBC 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수 있다. 단, 그때까지 감독으로 재임할 수 있다면 말이다. G

글 · 이선호 OSEN 야구부장



FIFA 회원국이 유엔 회원국보다 많은 이유는?

전 세계 축구팬들은 이번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우승컵을 어느 나라가 차지할지, 경기마다 또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기대가 자못 크다.

그래서일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7월에 선정한 추천도서 중 '월드컵'과 관련한 책들이 눈에 띈다. 먼저 독일의 축구 전문 작가 크리스토프 바우젠바인이 펴낸 〈축구란 무엇인가〉다. 저자는 축구 역사와 이론, 축구가 가져온 대중 현상, 역대 경기 등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최고의 스포츠가 된 축구의 비밀을 해독한다.

그중 가장 흥미를 끄는 대목은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까닭이 명시된 부분이다. 축구는 특히 손이 아닌 발을 사용해 예측 불가능한 결말을 낳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공을 손으로 다루면 원하는 방향대로 길들일 수 있지만 발로 차면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구기 종목에서 생명력을 얻는 스포츠는 축구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축구 문외한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축구란 무엇인가〉

국제축구협회(FIFA) 회원국 수(2백8개국)가 유엔 회원국 수(1백92개국)를 능가한 이유, 단일 종목의 월드컵 경기가 전 종목이 출전하는 올림픽보다 인기 있는 이유 등 축구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실려 있어 축구 문외한도 쉽게 따라 읽을 수 있다.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면 올해 월드컵이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관련한 책도 읽어보자.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통아프리카사〉다.

올해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리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땅' 하면 TV 화면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프리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여긴 저자 김시혁 씨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아프리카 역사를 소개한다. 인류의 탄생부터 최근 잦은 민족분쟁과 내전의 원인까지 아프리카의 정치, 역사, 문화 등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중세 아프리카 역사와 문화에 초점을 맞춰 아프리카의 뛰어난 문명을 이야기한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아프리카 현장과 인물을 담은 사진, 나라별 지도를 통해 아프리카의 맨 얼굴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추천사에서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kpec.or.kr



축구란 무엇인가
크리스토프 바우젠바인 지음 · 김태희 옮김 · 민음인 펴냄
축구 서적의 백과사전이자 완결판. 축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추천**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통아프리카사
김시혁 지음 · 다산북스 펴냄
아프리카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역사책.
추천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이태호 지음 · 생각의나무 펴냄
저자가 30년간 금강산에서 남도까지 조선 산수화의 풍경을 찾아다니며 연구한 기록물. | **추천**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거인들의 생각과 힘
빌 브라이슨 지음 · 이덕환 옮김 · 까치 펴냄
세계 과학의 역사를 주도해온 영국 왕립학회의 창립 3백50주년을 기념해 만든 과학 에세이집. | **추천**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문자의 역사
스티븐 로저 피셔 지음 · 박수철 옮김 · 21세기북스 펴냄
고대 문자부터 현대의 다양한 문자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문자의 역사를 추적한다. | **추천**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온 국민 주치의 제도
고병수 지음 · 시대의창 펴냄
우리나라 의료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추천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 이창신 옮김 · 김영사 펴냄
정의의 관점에서 현실의 법적, 정치적 논쟁을 다룬 책.
추천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우리 동네 미자 씨
유은실 지음 · 장경혜 그림 · 낮은산 펴냄
가난하고 외로운 미자 씨의 삶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도와준다. | **추천**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문학가)



새뮤얼슨 교수의 마지막 강의
폴 A. 새뮤얼슨 지음 · YBM Sisa 편집국 옮김 · YBM Sisa 펴냄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저자가 생전 20년간 기고한 칼럼을 엮은 책. | **추천**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마종기 지음 · 비채 펴냄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펴낸 시작 에세이. 시인이 아끼고 좋아하는 시 50편을 뽑아 그와 관련한 사연들을 적었다. | **추천** 신경숙(작가)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글과 그림 · 최영순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다.
우리는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웃음이다.
– 노먼 커슨스(미국 평화운동가)

新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 무더위를 길들여라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

일시 7월 9일~8월 14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2시, 6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1~3급 동반 1인까지)
문의 02-577-1987 www.ntok.go.kr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인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키스 미, 케이트(Kiss me, Kate)〉가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웃음을 몰고 온다. 이 작품은 1948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후 20여 년간 1천77회의 장기공연을 기록했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1999년 무대와 극본을 재정비해 33년 만에 막을 올린 리바이벌 공연은 객석 점유율 1백 퍼센트의 흥행을 이어가며 이듬해 토니상 5개 부문을 비롯해 드라마 데스크상, 비평가협회상 등을 휩쓸었다.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는 이혼한 한 쌍의 배우가 뮤지컬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함께 출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원작의 특별한 수법인 '극중극(Play in Play)' 형식을 빌려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공연되고 있는 무대와 배우들의 쉼터인 분장실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코믹하게 그려낸다. 이 작품은 2001년 우리나라에서 초연됐을 때도 앙코르 공연까지 흥행에 성공을 거뒀다.

10여 년 만에 다시 막을 올리는 이번 공연에는 2001년 초연 당시 신들린 듯한 연기를 펼쳤던 배우 남경주와 최정원 외에도 이인철, 황현정 등 탄탄한 기량을 갖춘 조연들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요계의 디바' 아이비(박은혜)도 합류해 작품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배우들은 모던하고 세련된 현대 의상과 16세기를 고증한 르네상스풍의 화려한 의상을 번갈아 선보인다. 무대는 16세기 남유럽의 우아한 건축형태와 강렬한 색으로 시대적 느낌을 살린 것이 특징. 김문정 음악감독은 "16인조의 오케스트라가 콜 포터의 다채로운 음악을 라이브로 선사해 한여름의 청량감 넘치는 웃음과 함께 꿈과 환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G 글 · 김지영 기자

오페라 〈어린이와 마법〉

일시 7월 10~18일 오후 7시 30분, 7월 17일만 오후 3시, 7시 30분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6-5282 www.sac.or.kr



드뷔시 이후 최고의 프랑스 작곡가로 불리는 모리스 라벨이 작곡한 두 오페라 중 하나로 1925년 초연됐다. 프랑스의 유명 작가 콜레트의 각본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1부와 2부로 나눠 공연되는 1막짜리 오페라다. 다양한 스타일과 기교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음악이 특징. 오페라와 발레의 요소가 세련된 조화를 이루는 이 공연은 시골집과 정원을 배경으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기획전 〈언어의 그늘〉

일시 7월 13일~10월 3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 중앙홀
관람료 일반 5천원, 청소년(만 7~18세) 2천5백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188-6000 www.moca.go.kr



한국과 스페인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MACBA) 소장품전. 마르셀 브루타스, 안토니 타피에스, 조앤 조나스, 리타 맥브라이드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1백5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의 주제는 '언어(Language)'. 미술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언어라는 점에 착안했다. 10월 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스페인의 현대미술과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 경제를 살렸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곧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땅, 우리 강을 보살피겠습니다.





G20 서울에서 만납시다!

6월 26,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반갑게 끌어안고 있다. 환한 미소로 서로를 맞은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전격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받기 위한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